

세계교육포럼 이틀째 한국형 학습모델 공유

세계 교육의 현실과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2015 세계교육포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관련 기사 3·19면〉

2015 세계교육포럼 이틀째인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는 오전 '교육2030-교육의제와 실행계획'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평등과 포용-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분쟁과 위기 시의 교육' 등 교육목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6개 논의가 진행됐다. 오후에는 다시 10개 분과별로 2030 교육의제의 글로벌 세부 목표와 교육과 관련된 다른 지속가능 발전 목표 내 세부 목표를 논의했다.

'개인과 국가 발전을 위한 역동적 교육: 한국의 사례'라는 한국 교육 전체회의는 세계교육포럼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NGO, 민간전문가 등 500여 명이 자리해 한국 교육에 큰 관심을 보였다. 발표자로 나선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장은 한국의 교육·경제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한국형 교육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던 3대 요인과 발전 전략, 도전과제 등을 각각 제시하며 한국을 세계에서 교육 발전과 경제 발전이 선순환 구조를 이룬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백 원장은 한국형 교육모델의 3대 구성 요소로 정부의 선도적 리더십, 우수한 교원,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등을 꼽았고, 이런 3대 요소에 더해 체계적·단계별·순차적 발전 전략이라는 한국 교육의 3대 발전 전략도 제시했다. 이는 산업 발전에 따라 시기별로 필요한 인재상과 교육기회 확대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경제성장 초기에 초·중등 의무교육을 시행한 데 이어 대학 진학률 증가와 대학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을 끌어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 원장은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교육,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 미래 학교, 입시 위주 교육이 아닌 자유학기제 도입 등이 한국의 주요 교육 혁신 방향"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등 당면 과제 대응을 위해 한국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2015 세계교육포럼 2일째인 2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에서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개인과 국가 발전을 위한 역동적 교육'을 논의하는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같은 날 유니세프 국제컨벤션대로 활동 중인 피겨어왕 김연아가 2015 세계교육포럼 유니세프 홍보관을 방문해 세계 시민교육을 상징하는 아이우인형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계수산대학 잡자' 인천의 물만난 프로젝트

수산 정책기술 교육·연구 수행... 한국 유치 땀 부산과 설립 각축
시, 검단 중앙대 무산 이후 절실... 해양인프라 연계 당위성 강조

인천시가 세계수산대학 유치를 나선다. 세계수산대학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개발도상국 인재들에게 수산정책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분야 국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세계 수준의 공인 교육기관이다. FAO는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

고, 미국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수산대학 한국 유치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점을 감안, 본격적인 대학 유치 사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세계수산대학은 현재 한국 설립이 유력 시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지원은 물론 FA

O가 최근 우리 정부가 보낸 세계수산대학 구상안에 대한 내부 검토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미 해양수산부는 FAO와 대학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FAO는 다음 달 세계수산위원회를 열어 대학 설립에 대한 국가별 심사를 마무리짓고, 올 연말까지 최종 후보 국가를 확정한다. 현재 국내에선 부산과 인천이 세계수산대학 후보지로 주목되고 있다. 인천보다 한 발 빠른 유치전을 펴고 있는 부산의 경우

서병수 시장이 직접 FAO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대학 유치를 타진한 바 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인천도 세계수산대학 유치를 위한 준비 단계에 접어들었다. 세계수산대학 유치가 국내 수산인력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산과 관련한 기술·제도·정책을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대학이 유치되는 지역이 받는 경제·문화적 혜택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세계수산대학 유치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기대 또한 적지 않다. 박승희 인천시의회 부의장은 "현재 인천은 항만·수산과 관련한 대학 유치가 목마른 상황"이라며 "해양대도 부산과 목표에만 있고, 최근 중앙대의 검단 신도시 무산으로 실망감이 커 수산대학 유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세계수산대학 유치를 준비하는 걸음마 단계지만 대학이 들어서는 지역이 받는 경제·문화적 효과를 감안하면 선점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했다.

이재훈 기자 jih@kihoilbo.co.kr

시감사관실, 인사위에 경제청 9명 징계 재심 요청

인천시 감사관실과 인사위원회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의 징계 수위를 놓고 2차전에 돌입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감사관실이 징계위원회의 인천경제청 직원 처분 조치에 반발해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한다.

이번 재심의 요청은 지난해 말 실시된 인천경제청 특정감사에서 감사관실이 이종철 전 인천경제청장을 포함해 총 9명에게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나 최근 열린 시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징계위는 해임을 결정한 이 전 청장 이외에 단 2명에게만 경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징계위는 경징계로 조치된 2명 역시 처분 수위 중 가장 낮은 '불문징

고'를 결정하며 사실상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 전 청장을 제외하면 감사관실의 처분요구가 대부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4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경징계 두 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해 징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문'을 처분했다. 징계위원회의 처분 통보에 당혹감을 나타냈던 감사관실은 법적 절차를 통해 명예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5조 등은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장이 징계(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법다(變)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

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은 경제청의 첫 징계위 통보를 받았던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26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부시장의 입장도 난처하게 됐다. 현재 시 인사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부시장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감사관실의 재심의 요청 최종 권한도 행정부시장에게 있다. 결국 두 직책의 장을 맡고 있는 행정부시장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한 조직은 불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시 인사위원회는 감사관실의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남동인더스파크 무료 통근버스이용률 왜 낮나 ▶ 7

중심을 잡는 언론

연합뉴스는 균형잡힌 시각으로 대한민국 뉴스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취재망을 보유한 연합뉴스는
국내외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합니다.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연합뉴스는 모바일 웹(m.yna.co.kr)과 앱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 연합인포맥스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7월 전국 끝씨로 출범

시, 한진그룹과 펀드 규모 놓고 마찰 사업추진 4개월 지연 기업, 땅콩회항·왕산마리나 영향으로 투자금액 부정 견해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일이 7월 중순으로 최종 확정됐다. 사업 방향과 펀드 규모를 두고 한진그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다 결국 전국에서 끝씨로 센터 출범을 맞게 됐다. 20일 시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이 최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일을 확

정지였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한진그룹과 사업 방향 및 펀드 규모, 조직 형태 등에 대한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미래부 허가와 법인 등기를 마치고 제물포 스마트타운 6·7층에 1천277㎡ 규모의 사무실을 마련했다. 센터 인원은 센터장 1명, 공무원 3명, 정보산업진흥원 3명, 신규 채용

4명 등 총 11명 정員이다. 센터는 물류·항공·대중국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 인천의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중국 전·출입 플랫폼 구축 등의 시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앞으로 한 달 남짓한 마무리 협상 예산 시와 한진그룹의 투자 규모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와 한진그룹은 센터 출범을 위한 사업비 투자를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벤처기업을 지원할 창조경제 혁신펀드 규모를 한진이 100억 원 안팎으로 제안한 게 발단이다.

시는 다른 지역 대기업 사례처럼 최소한 200억~400억 원 규모로 펀드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논란과 왕산마리나 복합단지 특혜 시비 등이 겹쳐서 인지 한진 측은 이미 약속한 100억 원도 힘들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이처럼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통근 합의를 성사시키지 못한 탓에 예정된 센터 출범일은 당초 3월에서 6월로 한차례 미뤄지더니 급기야 7월로 다시 조정됐다. 인천과 달리 대구와 대전, 광주,

부산 등지에서선 삼성, SK, 현대자동차, 롯데 등이 각각 센터 출범을 확정지었고, 결국 인천은 전국에서 끝씨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열차를 타게 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진그룹이 내부 사정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이제 대부분의 준비는 마친 상황"이라며 "가장 늦게 센터를 출범하지만 내실있는 운영 만큼은 1위가 될 수 있도록 추진과 최상의 파트너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jih@khihoilbo.co.kr

동구, 200억 장학금 모은다더니 공무원에 할당 납부 권유 '눈살'

직급별 금액 정해 증용
화도진축제 예산 회수
주민 보조금 반납 논란

인천시 동구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장학기금 조성사업이 주민 의견수렴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동구는 구청장의 핵심 공약인 거주 학생 장학금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동구 꿈드림 장학회'를 창립했다고 20일 밝혔다. 구 예산으로 최초 50억 원을 출연하고 이후 5년간 매해 1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이다. 또 구민·단체·기업의 기탁금으로 100억 원을 조성하는 등 총 200억 원의 장학기금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현재 구는 구민·단체·기업의 기탁금 2억여 원과 구 예산 출연금 50억 원 등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마련돼야 할 장학금이 일부에서 강제적으로 이뤄지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실제 구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7급 이하 10만 원, 6급 20만 원, 5급 30만 원, 4급 50만 원 등 금액을 정해놓고 납부를 종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해당 장학금에 대한 불신

감이 높아지고 있다. 동구의 한 직원은 "장학금 조성을 아주 순수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렇게 직급에 따른 금액까지 정해놓고 납부를 권유하는 것 자체가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민들의 잔치인 화도진축제 예산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일괄 수용해 논란일 일고 있다. 동구의 대표축제인 화도진 축제에 각 동별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15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지급 예정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해 각 동 부녀자회, 새마을회 등 자생단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부녀자회 회원은 "화도진축제를 빛내자는 차원에서 힘들어도 각 동별로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을 반납하러니 답답하다"면서 "장학금 조성도 좋지만 주민들의 작은 보람이 없어져 안타깝다"고 힐책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직원들에 대한 직급별 기부금은 상·하위 직원 간의 보수 차이도 있고 해서 차이를 준 것이 강제조항은 아니다"면서 "화도진축제 보조금 반납은 일회성·소모성 비용을 좋은 곳에 사용하는 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고 해명했다. 최유락 기자 cyt@khihoilbo.co.kr

교동대교, 통금시간 해제

강화주민 24시 통행 가능 '15 검문소' 위치 이전 등 검문 검색 위해 도로확장

시간 제한으로 강화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교동대교가 20일 자정부터 교동주민들에 한해 24시간 통행이 가능하게 됐다. 20일 강화군에 따르면 교동도와 강화도를 연결하는 교동대교는 지난 2008년 10월 착공 891억 원을 들여 2014년 6월 준공·개통한 이후 교동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게 됐다. 하지만 교동도가 민통선 지역인 탓에 교동대교의 통행시간은 교동주민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일반 방문객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였다.

그간 교동 주민들은 통행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해 왔고 이에 따라 해병2사단과 강화군은 협의를 통해 20일 자정부터 교동대교의 24시간 통행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또 일반 방문객에게 적용되는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만 통행 가능'도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조정, 불편없이 교동을 찾을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강화군은 교동주민의 교동대교 24시간 통행을 위해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하점면 이감리에 위치한 15검문소의 위치 이전과 원활한 검문검색을 위한 도로 확장을 마쳤다. 또한 강화군은 해병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교동대교 근처의 과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을 설치, 검문검색에 투입되는 군 장비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펼쳐왔다. 김혁호 기자 kimhho2@khihoilbo.co.kr



부평구와 전국노점상총연합회는 20일 부평구청에서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부평역 노점상 한숨 돌렸다... 철거잠정유보

전노련, 홍미영 구청장 면담서 정비대책 준비 재협의키로

인천시 부평역 일대 노점에 대한 대대적인 철거 작업이 당분간 유보될 전망이다. 홍미영 부평구청장과 부평역 일대 노점상 대표의 첫 면담이 성사되면서 양측이 오해를 풀고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20일 부평구와 전국노점상총연합(이하 전노련)에 따르면 구청장 홍미영 양측이 어떤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부평역 일대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위생이나 통행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우리 쪽에서 준비

해 구와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구 관계자는 "부평역~시장로터리 일대 상가들과 보행자들에게서 점수된 민원이 수십 건에 이르러 더 이상 행정처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오늘 대화를 통해 일정 기간 노점상민들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부평구와 전노련의 갈등은 구가 지난 3월 불법 노점 철거 계획을 알리면서부터 시작됐고 구청장 면담 불발과 2차례에 걸친 강제 철거 고강도 발송, 최근 열린 부평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기도 했다. 김종국 기자 kij@khihoilbo.co.kr

인천대-농협물류 산학활동 활성화 협약 체결

인천대학교와 농협물류는 20일 오전 송도캠퍼스 영상회의실에서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물류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교육 체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술개발 및 제반업무 협력을 통해 국가의 물류혁신을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과 농협물류는 '3PL, SCM, 국

제물류, 운송·보관, 물류경영 및 전략 수립' 부문의 신기술 정보 교류와 공동연구에 필요한 기술 및 인적 자원을 상호 제공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특히 동북아물류대학원은 농협물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내부 교육 과정 공동운영, 프로젝트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농협물류에 소속된 재직자의 대학원 학위과정 지원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최유락 기자 cyt@khihoilbo.co.kr

뷰티풀 '강화 선두마을'... 시, 대한민국 경관대상 우수

인천시가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강화군 선두마을이 농산어촌 경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경관대상은 광장, 녹지, 하천 및 오픈스페이스 등 공공 공간과 민간 건축물, 자연환경 등이 잘 어우러져 종합적으로 우수한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한 사례를 평가해 시상하는 상이다. 올해는 ▶시가지 ▶역사문화 ▶농산어촌 ▶자연경관 ▶공공디자인

인 등 총 5개 경관 부문으로 나눠 시행됐다. 시는 농산어촌 경관부문에 '강화 선두지구 마을경관 형성사업'을 작품명 '쉬엄쉬엄 선두리 산책'으로 응모했다. 선두마을은 깎벽이 펼쳐진 수려한 마을 경관을 잘 보전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계획수립부터 준공 후 관리까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진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hihoilbo.co.kr



남동국가산업단지 소방시설관리업

1호 등록업체!

살탐문의 070.7452.77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42 (논현동 444-5 53B 5L) Tel_032)859.5001 Fax_032)859.5909 www.nareang.com

제2013-1호 소방시설전문관리업등록기관

산업단지 전문 소방점검대행

- 소방시설의 오작동에 대한 신속기동반 운영
-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실시
- 기술전문인력 배치로 소방안전관리 대행업무
- 소방시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실시 지도
- 각종 민원으로 인한 소방서와의 업무처리
- 점검중 발견된 경미한 불량에 대한 보수실시
-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선임 대행

ICT 접목한 교육 콘텐츠로 수업 질 높여야

(정보통신기술)

세계교육포럼 토론 미래방향 제시

태블릿PC·모바일 등 활용 수업 학생·교사 역량 강화 '긍정 효과'

지구촌 교육 발전 방향과 목표가 논의되는 교육 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2015 세계 교육포럼'에서 기술을 통해 교육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세계교육포럼이 열린 20일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기술을 통한 혁신:교육의 미래 형성'이라는 주제로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이 열렸다. 보다 평등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ICT(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를 교육에 접목해 발전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대부분의 토론 참여자들은 ICT 활용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케냐의 다담 난민캠프 교사로 활동 중인 줄리 무고그와 씨는 "교육자원 부족으로 그동안 교육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태블릿PC를 이용한 수업을 도입한 뒤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지만 ICT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앤드류 볼링턴 덴마크 레고재단 연구학습분야 글로벌 대표는 "기술이 빠



인천시 송도컨벤시아에서 20일 각국 전문가들이 '기술을 통한 혁신:교육의 미래 형성'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최민규 기자 cmg@khihoilbo.co.kr

르게 변화하는 만큼 교육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술 연구를 통한 발전이 필요하다"며 "교육콘텐츠의 질을 높여 필요한 정보를 골라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냐 국적의 한 여성이 원거리 온라인 학습을 통해 매일 공부해 성공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아사 신 칸와 Commonwealth Of Learning 대표는 "모든 발전을 위해서는 연결성·콘텐츠·기술 등이 필요하다"며 "ICT를 접목한 태블릿PC나 모바일은 학습자들의 수준을 높이는 효과적인 매체"라고 설명했다.

제품 모리시 Global e-School&Communities Initiative 대표는 "케냐와 타자나

의 20여 개 학교에서 ICT를 통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교육에 대한 행복을 알게 됐다"며 "기술 발전과 교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교육 혁신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에 ICT를 효율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야가 필요하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페르난도 필구에라 우루과이 교육문화부 차관은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교사들이 이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콘텐츠 개발 및 평가에 집중해야 하며, 모든 학습에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

언했다. 스톨리 주빈 이라니 인도 인적자원개발부 장관은 "최근 인도에서도 디지털 기술 발전을 통한 교육 방법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기존의 교재와 ICT 기술을 접목한 교재를 동시에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폴리 제이미슨 에버하트 제작자는 "기술을 이용한 교육은 분쟁지역 등 고립된 아이들에게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면서도 "기술 확장에 드는 비용에 대한 고민, 교육 기반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유태 기자 cyt@khihoilbo.co.kr 김희연 기자 khy@khihoilbo.co.kr

"교육, 양극화 극복 돕는 희망 사다리"

황우여 교육부 장관 연설

'개인과 국가 발전을 위한 역동적 교육, 한국의 사례'를 주제로 한 2015 세계 교육포럼 전체회의가 20일 오후 4시 30분께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됐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연설을 통해 "교육이야말로 개인의 소질을 발굴하고 키워 냄으로써 개인의 행복한 삶을 구현해 주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한국은 전쟁과 분단을 겪으며 세계에서 가장 힘들고 빈곤한 나라 중 하나였다. 인천 역시 UN 연합군이 분위기 반전을 위한 상륙작전을 펼침으로써 초도 화되기도 했다.

황 장관 역시 "당시 한 학급에 80여 명의 학생이 맨방에 세워진 천막 하나에 의지해 유네스코가 지원해 준 교과서로 공부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한국은 전쟁 중에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뒤에도 결코 학교 수업을 멈추지 않았다"며 "현재 한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교육을 통해 이뤄졌다"고 단언했다. 한국인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성, 높은 교육열이 정부의 적절한 교육정책과 어울려 민주주의와 경제적 발전을 단기간에 이룰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황 장관은 "교육은 개인에게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인재 양성의 핵심"이라며 "한국 정부는 모든 국민이 공교육 체제 안에서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인천 세계교육포럼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민규 기자 cmg@khihoilbo.co.kr

한국의 또 다른 위기였던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공교육 재정을 줄이라고 권유한 바 있다. 이에 황 장관은 "당시 정부는 오히려 교육재정을 확보해 공교육 재정비율을 늘렸다"며 "결국 이는 미래 인재 양성이 이끌어 내 어는 나라보다도 경제위기를 확실하고 빠르게 극복한 원동력이 됐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황 장관은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교육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사다리, 갈등으로 분열된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국가적 차원을 뛰어넘어 전세계의 교육문화와 삶을 발전시키는 논의의 장이 됐으면 한다"는 당부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김희연 기자 khy@khihoilbo.co.kr

새정치 시당 "유 시장, 2016년 매립지 종료 선언하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망연자실'

인천시·여성가족재단 도서지역 책 후원 행사

향의서한 전달... 서구 주민과 함께 연장 반대 투쟁 방침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수도권매립지 2016년 사용 종료 촉구하는 향의서한을 전달했다.

새정치연합 시당은 20일 인천시청을 찾아 이흥범 비서실장에게 수도권매립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청사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에 전달한 정책제안서를 통해 "2016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 선언과 향후 제2매립지에는 소각된 쓰레기만 매립할 것, 수도권매립지 정책 논의를 위해 명실상부한 여·야·정·주민·전문가 시민협의기구 조례 구성,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각 지자체의 대체매립지

준비 등을 제안했으며 제3매립지 조성 시도는 영구화해 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신동근 새정치연합 인천시당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향의서한 전달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

직 매립용량이 남아 있는 제2매립장에는 소각된 쓰레기만 매립하고,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반입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시당은 이날을 기점으로 시청 앞에서 100여 일 이상 진행하던 천막농성장을 서구 검암역 인근으로 옮겨 서구지역 주민들과 함께 매립지 연장 반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hihoilbo.co.kr

인천시, 중기 6곳 선정... 최대 30억 원 육성자금 지원

인천시가 지역 중소기업 집중 육성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약진하는 기업, 300만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2015년 중견 성장사다리 기

업'을 신청받는다. 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30개 사를 오는 2018년까지 집중 육성한다는 목표다. 올해는 중견 성장사다리 기업 6개

사가 선정된다.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상, 자산 300억 원 이상, 종업원 수 50명 이상, 업력 3년 이상, 신용등급 BB-

B- 이상 업체가 신청 대상이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 시스템 BizOK([.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는 최대 30억 원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이차보전금 2% 이내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http://bizok.incheon</p></div>
<div data-bbox=)

이병기 기자 rove0524@khihoilbo.co.kr

반기문 유엔 총장 방북 불발 임금 문제 등 해결 기대 꺾여

북한의 갑작스러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 철회에 인천지역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확고한 대하던 '5·24조치(남북협력 중단)' 해제도 사실상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반 총장은 20일 서울디지털포럼 연설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방북 허가 결정을 철회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북을 기념해 대규모 환영행사를 준비하려던 인천지역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6개월 넘게 진행된 '가동 중단 쇼크'로 아직까지 거래처 이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들은 반 총장 방북에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반 총장이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 지원에 힘을 보탬 것으로 예상했다.

이명섭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사무총장은 "입주기업들이 상당히 침울해진 분위기"라며 "남북 경제 국면이 언제 풀릴지, 정부의 말만 믿고 남북통일을 염원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성공단을 택한 입주기업들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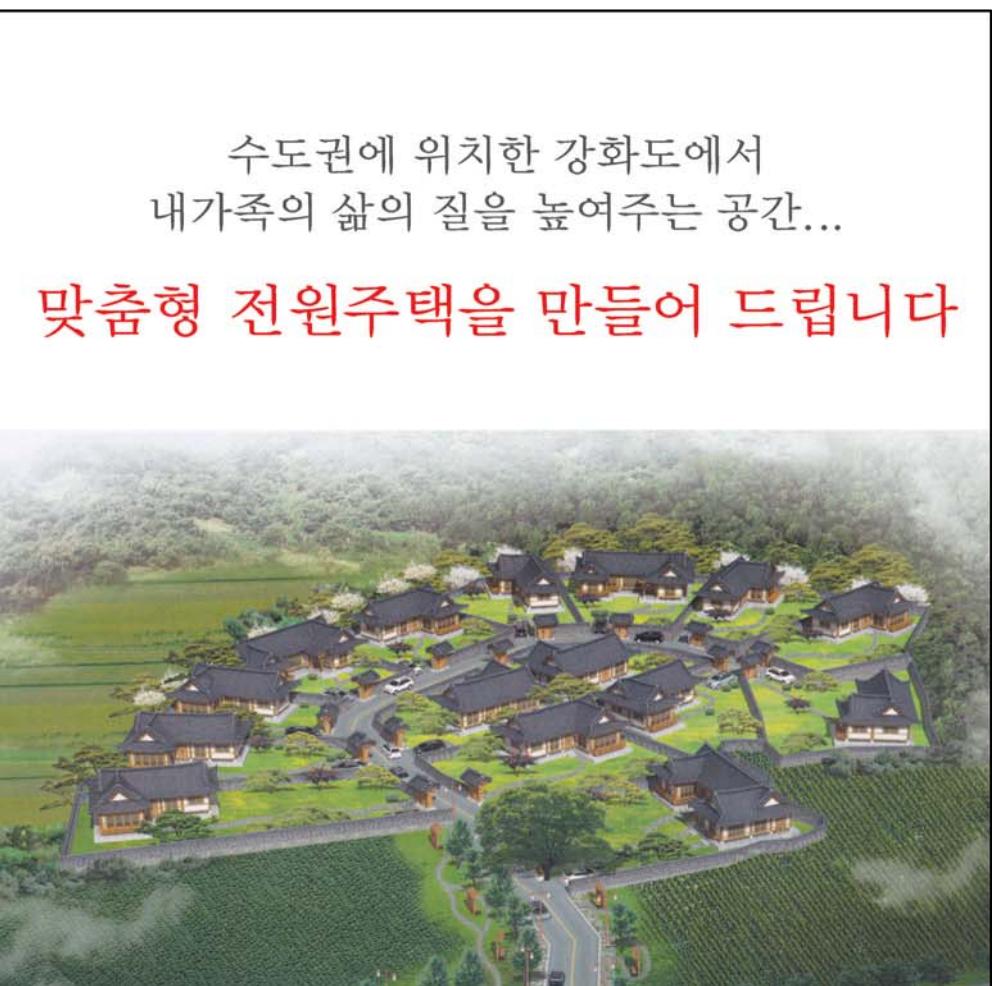
이재훈 기자 ih@khihoilbo.co.kr

인천시와 인천여성가족재단이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을 맞아 도서지역 도서 후원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책 읽는 문화를 생활화하고, 인천 인문 기반의 확충 및 책으로 교류하는 도시 실현에 기여하고자 21일 인천여성가족재단 앞마당에서 '도서지역 도서 후원을 위한 도도한 나눔장터'를 실시한다.

행사 당일에는 중고 도서 판매를 통한 책 나눔, 수강생 작품 및 창업 동아리 물품 판매, 지역 기업 홍보 및 물품 판매, 먹거리 장터 등이 열리고 판매자들은 수익금의 10%에서 도서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후원하게 된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hihoilbo.co.kr



수도권에 위치한 강화도에서
내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공간...
맞춤형 전원주택을 만들어 드립니다

전 · 원 · 테 · 마
country theme

전원주택
부지 & 건축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413-1(느티마을) 온수리 현장
대표 : 박찬수 010-3100-8386

미세먼지 대응방안 미흡... 빅데이터 활용해야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 요지

경기도의회는 20일 제29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정 및 경기도 교육행정에 관한 일괄 질의를 진행했다.

▶ 송순택(새정치·안양6)의원은 경기도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의 미흡성을 지적, 대책과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경기도는 미세먼지 대응 방안으로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와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장기간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민 건강과 직결된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남경필 경기지사는 생활 주변 미세먼지 관리 강화 및 대책을 추진하고,

교육환경 열악한 道 북부 근무 교사 인센티브 부여

대학·기업입지 침침산중 동부 규제 완화대책 절실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 홍범표(새누리·양주2)의원은 양주시 아동보호처분시설인 '나사로의 집' 운영 문제 해결에 중앙정부와 도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양주시 소재 여성·청소년 보호시설인 '나사로의 집'은 운영예산의 80%를 지원하던 양주시가 이년부터 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폐쇄 위기에 놓여 있다.



송순택 의원

홍범표 의원

김동규 의원

조재욱 의원

이현호 의원

홍 의원은 "아동보호처분시설 운영은 전국 비행청소년들의 경생을 위해 체계적인 아동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 국가사수에 해당한다"며 "아동보호시설을 포함한 아동복지사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차선책으로 지자체가 시설 운영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동규(새정치·파주3)의원은 경기북부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

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 질의에서 "경기북부지역에는 주로 신입자들이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배정되고 있다"며 "파주시 학교에는 중간관리자가 없어 각 부서의 부장을 맡을 교사를 찾기도 힘들고, 운동회나 각종 체육활동 등을 지도할 교사가 없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 테두리 내에서 능

여촌·접경·산단지역 등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면 지원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조재욱(새누리·남양주1)의원은 팔당호 침적 쓰레기에 대한 조속한 처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도에 주문했다. 조 의원은 "팔당호 내 버려진 침적 쓰레기는 192.8t에 달한다"며 "침적 쓰레기와 축적 퇴적층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수질 및 저절도 오염은

물론 어족 자원량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는 침적 쓰레기 현황 파악 및 수거 수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수거를 위한 10년 장기계획을 수립해 5년마다 쓰레기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현호(새누리·이천1)의원은 경기동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다양하고 촘촘한 규제 4년제 대학의 입지 조차 불가능하고 대기업의 신·증설 조차 겨우 안마당만큼 가능한 지역인 경기동부지역에 대해 남지사의 관심이 너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부지역도 북부지역처럼 도 차원의 종합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경진 기자 why0524@khihoilbo.co.kr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 안산시의회 특위 본격 활동

안산시의회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안산시의회 지역경제 대책특위는 지난 19일 의회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특위 위원들과 기획경제국 및 산업지원본부 6개 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개최, 활동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활동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정책방안 수립·기업유치와 일자리 확대 방안 모색을 활동 과제로 삼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상의 피해지역 특별 지원방안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경제 정책 수립 지원, 기업활동 활성화 방안 강구,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방안 모색,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대형사업의 경제적 활용 극대화 등을 세부 실천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달 중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의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안산=최승필 기자 spc@khihoilbo.co.kr

광명시 3년 연속 일자리정책 '우수'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한 성과 역세권 지구 1500여 명 채용

광명시가 20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5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일자리 불모지임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한 결과다.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은 전

국 243개 자치단체(광역시, 기초 226)가 임기중 지역주민에게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 목표와 대책을 공시하고 매년 일자리 대책과 추진 실적에 대해 지역 고용자문단 예선평가를 거쳐 중앙평가에서 최종 선정된 우수 지자체를 시상하는 자리다.

광명시의 일자리 실적은 ▶정량지표 고용률 등 각 부문에서 2013년도 대비 평균 25p 상승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일자리 목표의 달성도, 일자

리 대책의 지역 적합성, 일자리 대책의 창의성, 대표사업 등 각 부문에서 목표 대비 평균 125% 초과 달성이다. 특히시는 광명역세권지구에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등을 유치해 지역주민 1천500여 명을 우선 채용하는데 기여했으며, 창조경제 광명동굴 지역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1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지난 한 해 동안 총 6천224명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hihoilbo.co.kr

주민 밀착형 건강증진 사업 가평군 우수기관 선정 영예

무병장수하는 건강사회를 이루기 위해 주민 밀착형 건강증진 사업을 펼쳐온 가평군이 '2015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군은 생애주기별 생활터 중심의 '수중 및 타이치 노인 건강체조'와 '어린이 건강체험교실'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증진사업의 체감도와 만족을 상승시킨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번 평가는 2015년(2014년 실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성과와 우수사례 발표를 토대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됐으며, 가평군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과 800만 원의 시상금을 받게 됐다.

특히 군은 치매 조기검진, 심·뇌혈관 질환관리, 방문 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공공의료 서비스인 '건강 싸이클! 활력충전 사업'을 통해 통합 건강증진 사업 운영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hihoilbo.co.kr



삼산연륙교 사업현장을 방문한 강화군의회 의원들이 현장관리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현안사업장 13곳 방문... 다양한 의견 청취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도중 삼산연륙교 등 안전관리 당부

강화군의회는 제222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현안사업장 등 13곳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 불편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15일은 한강물이 들어오는 김포시 포내천 현장과 수해 상습지역인 선행천과 삼동암천 공사 현장, 18일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RPC(미곡중

합처리장)와 삼산연륙교 및 연계도로망 공사장, 석모도 휴양림·수목원, 삼산안전 축육장을 각각 점검하고 19일에는 강화월반산업단지와 한해대책 추진 현장 등을 점검했다. 군의원들은 한강물을 이용해 한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김포시 포내천 현장을 살펴보고, 한강물 공급을 위한 양수장 설치와 저류지 확장을 위한 국비 확보 방안과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당부했다.

선행천과 삼동암천 수해 상습지

역 개선공사 현장을 살펴본 후 군의원들은 공사 진행이 당초 계획보다 매우 부진한 실정이고, 상부 제방도로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우기철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군의원들은 또 삼산연륙교와 연계도로망 건설 현장을 찾아 대형공사장인 만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화=김현호 기자 kimhh2@khihoilbo.co.kr

안산시의회, 스마트허브 인프라 개선촉구 건의안 채택

안산시의회가 안산스마트허브의 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의 '안산스마트허브 인프라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윤석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스마트허브 인프라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안산스마트

허브는 30년 넘게 한국 경제 발전의 첨병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각종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사고의 위험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안산스마트허브에서 발생하는 5천982억 원의 세금 중 78%가 넘는 4천686억 원을 국세로 징수해 가면서 노후한 산업단지의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및 개량이 소외되는 비



안산시의회 윤석진 의원이 본회의에서 안산스마트허브 인프라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용은 안산시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산=최승필 기자 spc@khihoilbo.co.kr

100% Natural Skincare System for Sensitive Skin



전국대리점모집
www.purifree.com
상세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소중한 우리 아기피부에..... 아직도 계면활성제 비누를 사용하십니까?

퓨리피 내추럴 스킨케어 시스템은 계면활성제는 물론 어떠한 화학물질도 첨가하지 않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특허기술과 벡서스의 제조 노하우가 만든, 영·유아 사용해도 안심할 수 있는 명품 한방천연비누입니다.

당신의 피부행복을 퓨리피가 지켜드릴 것입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발명특허기술





PURIFREE
02-2648-9778

與野,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안 잠정합의

'5·2 합의' 존중... 전문가 의견 수렴해 25~26일 확정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28일 본회의 때 처리키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에 대해 여야 실무차원의 잠정 합의가 도출됐다. 사회적 기구 구성안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6일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조·강 의원은 각 당의 원내지도부에서 협상권을 위임받은 상태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2015년 5월 2

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에 이어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합의한 이른바 '5·2 합의'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고, 공적연금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 기구를 동시에 발족하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사회적 기구 구성안의 문구에 대해서도 조·강 의원은 절충안을 초안 형태로 마련했다. 다만, 각 당 지도부의 추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합의문에는 담지 않았다.

조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50% 문제에 접근했다.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접근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규칙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양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금요일(22일) 추가 의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회적 기구 구성안에 대한 학계 전문가 약 10명의 의견을 이번 주말까지 수렴해 오는 25~26일 중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후 국회 특위 구성 결의안과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동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왼쪽),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20일 국회 안행위 소회의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강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발표도 자제할 것을 여야 및 정부에 촉구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고 밝혔다.

청년위 부위원장에 새정치, 신한호 임명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청년위원회 출범식에서 신한호(36·사진)를



민중당 성남수정지역위원회 청년국장을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문재인 당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출범식에는 청년조직이 당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엿보였다.

신한호 신임 부위원장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당의 중심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영주 출신인 신 부위원장은 육군 대위 출신으로 동국대 정책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성남시 새마을운동 이사, 성남청년회의소 사무처장,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hihoilbo.co.kr



'새마을' BI 당선식.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새마을' 명칭·BI 공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 이하 지역위)는 2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프로젝트 명칭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사업의 새 이름과 BI를 공개했다.

명칭 공모에는 전국에서 총 1천381건의 응모작이 접수된 가운데 인천에 거주하는 최정수(부평구)씨가 제안한 '새마을'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새마을'은 '마을을 새롭게 정비해 희망을 가꾼다'는 의미이며, 당선작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위원장 상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지역위는 앞으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프로젝트'는 '새마을 사업'으로, 대상 마을은 '새마을'로 칭하기로 했으며 친근하게 통용될 수 있는 사업의 BI도 발표했다.

BI는 '새마을'을 통해 지역에 희망을 선사하고 국민의 행복을 복돋는다는 의미를 '행복한 페인팅'이란 콘셉트로 형성화했다. 지역위 관계자는 "새마을을 사업이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책 홍보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마을 안내표지판을 비롯해 사업 대상지 현장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적용시켜 볼 예정"이라고 했다.

강릉서 기자 kbs@khihoilbo.co.kr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 개혁 시동

여야는 20일 최근 유용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원종 파문'에 연루된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와 '입법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의혹을 받는 봉깃돈의 출처를 국회 주요 직책의 판공비 격인 특수활동비로 해명하는데 여론 비난이 들끓자 앞다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에서 "국회 차원의 의장, 부의장,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 등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유용 문제가 불거졌다"며 "거기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장을 찾아보고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 차원에서

어떤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지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의 개선대책단을 출범시켜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홍준표 지사의 특수활동비 '유용'을 언급한 뒤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국회를 보는 국민 눈길이 아주 차가워졌다"며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반장으로 국

회 특수활동비를 전체 점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개선대책단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 자신이 발의한 국회의원 윤리심전특별법을 언급한 뒤 "특수활동비가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국민 감정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윤리 확립을 위해 제대로 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릉서 기자 kbs@khihoilbo.co.kr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20일 여의도 국회의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등과 환담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기문 "박 대통령 활동에 초당적 지지 필요"

국회 방문 의원 협력 당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활동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의회의 지지, 특히 초당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날 국회의를 방문해 정

의화 국회의장과 정경준·이석현 부의장,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나경원 외교 통일위원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초당적 지지는 전세계 어디를 가도 제가 강조한다"며 "특히 외교, 국제개발, 평

화, 정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당이 다를 수 없고, 인류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협조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저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신봉하고 세계 각국을 다닐 때마다 의회 지도자들을 거의 예외없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다"며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지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에서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일을 하지만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법안이나 예산 뒷받침을 해 주지 않으면 잘 안 된다"며 "그런 면에서 모국인 대한민국 국회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릉서 기자 kbs@khihoilbo.co.kr

김무성 대표, 인천 서·강화를 방문 농업용수 공급 등 공약 이행 다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0일 4·29 재·보선 승리를 안겨 준 인천 서·강화를 지역을 방문, 안상수 의원과 함께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공약 실천을 다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농민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김 포양수장을 통한 농업용수 확보'를 대표 공약으로 집중 홍보했다.

김 대표는 강화군 간담회에서 "우리가 '안상수'라는 상품을 자신 있게 팔았는데 거기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하고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오게 됐다"며 "강화는 굉장히 매력적인 보물섬"이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김포양수장을 통한 농업용수 공급 공약과 관련해 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접촉해 직접 공약을 챙겼다고 밝히며 "여기 오기 전 강화군과 농어촌공사, 농식품부와 같이 김포양수장 현장에 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0일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와 강화군 교산리수지 사이의 강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장 현장시찰에 앞서 농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확인한 결과 870여 원을 들이면서 안 의원도 "김단신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단신도시 1지구(1천123만9천669㎡)와 2지구(330만5천785㎡)를 합쳐 1천454만5천454㎡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인천 서구 검단에서 한 간담회에서 안 의원은 "김단신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단신도시 1지구(1천123만9천669㎡)와 2지구(330만5천785㎡)를 합쳐 1천454만5천454㎡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농민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김 포양수장을 통한 농업용수 확보'를 대표 공약으로 집중 홍보했다. 이어 정오께 강화군, 오후에 인천 검단의 안상수 의원 사무소에서 각각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 설명회 및 당직자·당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선거 때 내걸었던 '쓰리고(T HREE GO)' 공약 추진을 재확인했다. '쓰리고'는 김포양수장을 통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물길 '열고', 영종~

안철수, 당 혁신위원장 제안 거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20일 당 세신 작업을 주도할 '초계파 혁신기구' 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전날 문 대표와의 회동과 관련, "어제 문 대표와 당 혁신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한 바 있으나, 제안을 받고 제가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

씀 드렸다"며 "혁신위원장은 당 밖의 인사가 맡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는 말씀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발표하지 못한 것은 혁신위원장 인선이 될 때까지 발표를 유보해 달라는 문 대표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불필요한 억측을 피하기 위해 문 대표의 양해를 구하고 오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강릉서 기자 kbs@khihoilbo.co.kr

여의도 중계탑

신학용 의원, 대한민국 의정혁신 대상 '우수' 뽑혀

국회 정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인천 계양갑)의원이 20일 전국사단법인총연합회가 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의정혁신 대상'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돼 수상했다.



'대한민국 의정혁신 대상'은 한 해 동안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한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의정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14명의 국회의원들과 상패를 받았다. 특히 신 의원은 이들 의원 중 2년

연속으로 유일하게 선정됐고, 야당에서도 유일했다. 전국사단법인총연합회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의정혁신 국회의원 심사위원회'를 구성, 국정감사·상임위원회 활동·국회 본회의 출석률·청렴성·애국심 등을 주요 항목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강릉서 기자 kbs@khihoilbo.co.kr

심재철 의원, 옥상 승강장 설치 유도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인양 동안을)국회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옥상시설은 건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옥상 승강장 설치를 유도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옥상



에 정원과 공원 등 녹화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옥상 정원과 호텔 수영장을 비롯해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규에서는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물 옥상에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층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건물 층수의 제한을 받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단순히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옥상을 별도의 층수로 산입하는 것은 손해이기

때문에 승강기 설치를 대부분 기피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건축물의 옥상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옥상 승강장 설치를 유도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도시 녹화와 건축물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옥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가 필요하지만 잘못된 법규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옥상 승강기 설치가 확대되고, 도시 디자인과 미관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흥복 기자 hjb@khihoilbo.co.kr

원혜영 의원 "한국금형센터 착공... 부천 발전 견인"

원혜영(새정치·부천 오정)국회의원은 지난 19일 대한민국 금형산업을 대표하는 '한국금형센터(부천오정산업단지)' 기공식에 참석해 "한국금형센터 착공을 계기로 부천이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제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원 의원은 "부천에는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번엔 금형이 새롭게 추가됐다"며 "금형산업은 전형적인 중소기업형인 중소기업의 6.16%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만큼 한국금형센터 건립을 통해 부천 금형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금형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전혜철 의원, 디지털 통신비밀보호 입법토론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한기호(안산 상록갑)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디지털 시대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입법토론회는 사이버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범죄 수사를 위해 제공된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상민 법사위원장, 법사위 입내원 의원 등이 참석해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는 민주주의법학연구원 한기호 교수를 좌장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와 서강대 이호준 교수가 발제를 했으며 법무부 공안기획과 김태훈 검사,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장영경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집행위원장,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전혜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수

사기관의 통신 관련 감청이나 압수수색 남용 등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많은 문정호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상민 법사위원장, 법사위 입내원 의원 등이 참석해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은 민주주의법학연구원 한기호 교수를 좌장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와 서강대 이호준 교수가 발제를 했으며 법무부 공안기획과 김태훈 검사,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장영경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집행위원장,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전혜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수

‘서울푸드2015’에 간 성남 먹거리산업

세계 입맛 잡고 수십억 계약고

식품기기·제조업 15곳 참가 국내만 25억 등 실적

성남지역 식품 분야 중소기업들이 아시아 3대 식품박람회로 꼽히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2015)에서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식품산업대에 성남지역 식품기기 및 제조기업 15개 사의 마케팅을 지원해 국내 바이어 25억 원, 해외 바이어 170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38개국, 1천 200개 식품 관련 기업들이 참가했으며 관람객은 6만 명에 달했다.

성남시 참여 기업 중 하이브리드 제습기와 식품건조기를 선보인 에이티엔지는 신규 제품을 런칭해 CJ제일제당, 지역 특산물 제조업체 등 대형 식품 제조사 바이어와 생산라인 설치용 건조기 납품 상담을 벌였다.

유기농 즉 제품을 출품한 철수식품은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할랄 인증을 획득해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으며 롯데마트, 메가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과 입점 상담을 진행했다.

첨단 바이오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식품용 천연 보존제를 개발한 비에스티는 전시회 기간 중 주최 측이 공식적으로 마련한 신제품 발표회를 가졌으며 생표식품, 조야제약 등과 제품 상담을 진행하고 해외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벌였다.

성남산업진흥재단 한승훈 사업본부장은 “성남시는 지역 기반 제조업인 식품 분야도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육성하고 있다”며 “날로 먹거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식품기업들도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성남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이규식 기자 ks23@khihoilbo.co.kr



서울국제식품산업대에 참가한 성남지역 업체들이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주거단지 2곳 ‘윈스톱 라이프’ 충분조건

유니온스퀘어+현안지구 인프라 ‘매력적’

하남 유니온시티 에일린의 풀한강 조망·서울 이동 수월 754가구 모두 중소형 몰랑



‘아이에스동서’가 22일 하남 현안지구 C-1블록에 공급하는 ‘하남 유니온시티 에일린의 풀’이 배후수요가 풍부한 아파트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사고 있다.

이 단지가 입주하는 시점에 단지 바로 앞인 유니온스퀘어와 유니온파크 등 윈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유니온시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단지 바로 앞에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3.3배 규모로 들어서는 유니온스퀘어는 국내에 들어서는 첫 교외형 복합쇼핑몰로 쇼핑, 외식, 영화, 문화공연, 엔터테인먼트, 레저 등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게 된다.

공사비 약 1조 원이 투입되며 11만7천990㎡, 총면적 44만㎡의 초대형 복합쇼핑단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해 4월 사업비 2천 730억 원을 투자해 환경기초시설인 유니온파크·타워를 오픈했다. 유니온파크는 어린이 놀이장, 생태연못, 야외무대 등 주민 친화 시설과 다목적 체육시설, 풋살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실내체육관이 조성돼 가족들과 함께 여가생활이 가능하다.

아이에스동서 분양 관계자는 “이 단지가 속해 있는 하남 현안지구는 한강 조망권, 잘 갖춰진 생활인프라, 학군, 쾌적한 자연환경, 서울 전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게 만들어 주는 도로망 등 향후 미래 가치가 뛰어나다”했다.

‘하남 유니온시티 에일린의 풀’은 일대 호재뿐만 아니라 특화된 내부 설계도 선보인다. 4베이(일부 가구 제외) 혁신 평면으로 채광이 우수하고 대형 펜트리, 주방 연계 가능한 알파룸, 이면개방형 거실·침실 발코니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교통 또한 우수해 지하철 5호선

검단산역(예정)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를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 진입도 용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인근에 초·중·고교가 위치해 외부로부터의 위험 요소가 적은 점도 학부모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남 유니온시티 에일린의 풀’은 지하 1층·지상 25층 8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74㎡ A 190가구 ▶84㎡ A 188가구 ▶84㎡ B 187가구 ▶84㎡ C 189가구 등 총 754가구로 전 가구가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됐다. 문의: ☎1644-9910

하남=이홍재 기자 hj@khihoilbo.co.kr

주상복합 주차 개선... 상업시설 3만㎡ 육박

동탄 린스트라우스더센터럴 주거·판매시설 동선 분리 특화설계로 전용률 70%↑



우미건설이 22일 화성 동탄2신도시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 내 C-12블록에 짓는 ‘동탄 린스트라우스더센터럴’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동탄 린스트라우스더센터럴’은 지하 3층·지상 44층 4개 동으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 ▶75㎡ A 161가구 ▶84㎡ A 145가구 ▶84㎡ B 127가구 ▶92㎡ A 83가구 ▶92㎡ B 187가구 ▶93㎡ A 83가구 등 총 617가구 규모다. 오피스텔은 전용 ▶23㎡ A 76실 ▶23㎡ B 37실 ▶40㎡ A 76실 ▶49㎡ A 35실 ▶49B 38실 총 262실로 구성된다.

복합단지에 조성되는 ‘동탄 린스트라우스더센터럴’은 과거 주상복합 단지들의 단점을 보완해 주거 시설과 판매시설 간의 차량 동선 및 주차시설을 분리, 입주주민들의 사생활은 보호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파트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선택형 벽체 등 다양한 특화설계로 평면 효율이 평균 73.3%의 높은 전용률을 자랑한다. 확장

시 주방펜트리와 안방 워크인 드레스룸 및 파우더룸, 맘스데스크(일부 타입 제외)가 조성되는 등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에는 환기에 용이한 미닫이창이 설치되며, 실별로 계절 창고를 제공해 불필요한 짐이나 레저·스포츠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실에는 인덕션 쿠킹, 빌트인 냉장고와 세탁기, 비데 등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며 특히 전용 49㎡의 보타에 주거 대체 상품으로도 적합한 단지를 둘러싼 총 2만9천여㎡ 규모의 스트리트형 테마 상업시설 ‘엘리스빌’은 단지 내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한 윈스톱 라이프 주거공

간을 제공한다. 이 상업시설은 영국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유틸리티 분위기의 스토리텔링형 상업시설로 조성된다.

분양가는 3.3㎡당 아파트의 경우 평균 1천100만 원대이며, 오피스텔은 평균 700만 원대이다.

아파트 청약 일정은 27일 특별공급, 28일 1순위, 29일 2순위, 6월 4일 당첨자 발표 후 9~11월의 3일간 계약을 진행한다. 오피스텔은 견본주택 오픈일인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청약 접수를 실시하며 26일 당첨자 발표, 28~29일 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18년 9월 예정이다.

문의: ☎031-276-1100

화성=박진철 기자 jch@khihoilbo.co.kr

내달 킨텍스에서 로봇·드론 마켓

제품전시-컨퍼런스 동시 개최

전세계 로봇 및 드론 마켓 플레이시인 로보유니버시티(RoboUniverse)가 오는 6월 24일부터 3일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펼쳐진다.

2015 킨텍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로봇·드론 분야 국제 무역 전시회를 이끌고 있는 미국 로봇 관련 전문 미디어그룹 맥클러 미디어가 킨텍스와 공동 주관한다. 이미 지난 11월(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제비츠 컨벤션센터에서 화려하게 오른 이번 행사는 한국(6월), 일본 도쿄(10월), 미국 샌디에이고(12월) 등 3개국 4개 도시를 차례로 순회할 예정이다.

킨텍스 행사에서는 국내외 로봇 및 부품소재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전시회와 함께 참가자들의 강연으로 진행되는 컨퍼런스도 함께 열린다.

특히 로보유니버시티가 주목받는 이유는 국내외 유명 연사들의 강연을 컨퍼런스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연사로는 미국의 시장조사·분석 전문업체 에이비아이 리서치의 로봇 분야 분석 전문가 댄 카리가 나와 서비스 로봇의 글로벌 트렌드와 사물인터넷, 로봇 지능 등 화두가 되고 있는 주요 융·복합 분야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남여주산단 본격 조성 내년 11월께 준공목표

여주시는 20일 남여주나들목 인근 능서면 오거리 일원 5만5천 585㎡ 규모의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다. 76억 원이 투입되는 남여주 산업단지는 진입도로 460m, 공사시설용지 3만8천497㎡, 공공시설용지 1만7천88㎡(도로, 주차장, 공원, 오수처리장, 완충녹지 등)가 조성되며, 201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한 시는 동여주나들목 남여주나들목 인근에 각각 6만㎡ 이하의 북내·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hihoilbo.co.kr

손안에 스마트 뉴스

기호일보 뉴스앱

나만을 위한 스마트 뉴스 - 기호일보 뉴스앱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기호일보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새로워진 기호일보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기호일보 뉴스앱 바로 다운받기

QR코드를 스캔하여 기호일보 뉴스앱을 다운받거나 앱스토어 또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기호일보를 검색하시면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용 안드로이드용



남동인더스파크 근로자 '무료 통근버스' 절반도 못 채우고 달려

인천 남동인더스파크 근로자들을 위한 '무료 통근버스' 이용률이 초라하다. 빗나간 교통수요 예측과 홍보 부족이 원인이다.

2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 본부와 남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남동인더스파크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무료 통근 버스를 아쉽게 출발시켰다. 남동인더스파크와 인접한 지하철역 3곳과 연계해 4개 노선에 총 8대의 버스를 투입했다.

하지만 4월 한 달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20.6명에 불과했다. 운영

4월 하루 평균 20.6명 이용 2번 노선 이용률 최저 '심각' 빗나간 수요 예측·홍보 부족 시 "전담 인력 구성해 해결"

초기이긴 하지만 무료 통근버스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

일반 시내버스 일일 평균 이용객이 1천~3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노선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

만 45인승인 무료 통근버스의 규모를 감안하면 좌석 절반이 빈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다.

같은 달 4개 노선 전체 이용자 수는 3천142명이다. 이 중 동춘역과 연계된 3번 노선의 이용객(1천393명)이 가장 많았고, 남동인더스파크역과 연계된 2번 노선(319명)의 이용률이 가장 낮았다. 특히 남동인더스파크와 직접 연결된 2번 노선의 지난 달 하루 평균 이용객은 8.3명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따라 산단공 인천본부와 남

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은 무료 통근버스 운영 2주 만에 일부 버스 운행시간을 변경했다. 여기에 이달 말까지는 2번 노선을 남동인더스파크역 출발에서 원인재역 출발로 새로 조정한다.

하지만 남동인더스파크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였던 근로자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노사민정협의회를 꾸리는 등 수년간 공을 들여 정부로부터 국비 지원(3억여 원) 사업을 따냈지만 기대 이하의 실적에 해당 운영기관들도 난감한 표정이다.

산단공 인천본부나 남동구청은 직접 공장을 찾다니며 무료 통근 버스 운영을 홍보할 전담 인력이 없다는 공백을 변명을 한다.

남동구 관계자는 "각 기관에 공장 지역 홍보 전담 인력이 따로 없어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홍보에 주력했다"며 "산단공에서 홍보 전담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지하철 및 버스 노선이 관통하는 기업체별 홍보를 위해 운영기관이 적극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hihoilbo.co.kr



장중용 전경련 경영자봉사회단 위원장(왼쪽부터), 박윤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배명환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이 인천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제공>

경인식약청, 부정물질 연구회서 최신 시험법 등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이 21일 전남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불량식품 근절 민관 협의체인 부정물질연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회는 제54회 한국분석과학회 춘계학술대회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그동안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연구회 활동과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부정물질연구회 수사연구원, 대검찰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민간전문가, 정책고객인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됐다.

이창호 기자 ych23@khihoilbo.co.kr

최신 부정물질 시험법 등이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연구회 활동을 정책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이끌어 내고, 부정물질 차단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이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물질연구회는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민간전문가, 정책고객인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됐다.

이창호 기자 ych23@khihoilbo.co.kr

인천항, 글로벌 중심지... '크루즈 기항지'로 제격

IPA, 中 상하이서 포트세일즈 2018년 전용부두 개장 등 홍보

인천항만공사(이하 공사)가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고 있는 '2015 크루즈설명회'에 참가해 크루즈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사는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크루즈 설명회에 참가해 상하이에 본사를 둔 선사 및 크루즈 전문 중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포트세일즈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도 함께 참가했다.

상하이는 다수의 글로벌 크루즈 아시아 본사가 모여 있는 곳이다. 유망한 시장을 대상으로 한 4명의 공사 세일즈단은 크루즈 전문 여행사가 선박을 우선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중국의 크루즈 비즈니스 형태를 감안해 중국 여행업체와 접촉, 세일

즈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 선대 투입 확대 계획을 갖고 있는 로열캐리비안 크루즈, 코스타크루즈, 프린세스크루즈 관계자들도 만나 인천항 기항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크루즈 선대 신규 투입을 검토 중인 크루즈 선사들에게도 인천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세일즈단은 2018년 개장을 목표로 진행 중인 인천항의 크루즈 전용부두 개발계획 등을 소개하고, 크루즈 기항지로서 인천항이 가진 매력과 시장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이 외에도 이번 일정 중 중화권 대형 컨테이너 선사인 CSCL 및 중국대형 화주사를 찾아가 인천신항 개장에 대비한 대형 컨테이너 선대

기항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한편, 오는 23일 귀국하는 유 사장 등은 중국 상하이를 출발해 제주를 거쳐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크루즈 코스타 세레나호에 올라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관계자 등과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선상 정책토론회를 연다.

배종진 기자 jongb@khihoilbo.co.kr



인천시와 신세계 인천점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 우수 공산품 판로 개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신세계 인천점 제공>

인천 생산 우수제품 백화점서 만나요

시·신세계 판로 개척 협약 제품 전시·입점 기회 제공

인천시와 (주)신세계 인천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와 신세계는 20일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 우수 제품 판로 개척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시가 지역 생산 공산품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면 신세계는 이들 제품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전시회와 판매전 개최, 입점 기회 부여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신세계 인천점은 22일부터 품질 우수 제품 지정 신청을 접수받아 현장심사 및 분야별 구매전문가를 위촉해 상품을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에는 713개(139개 사) 제품이 품질 우수 제품으로 선정돼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지역 품질 우수 제품들이 판로가 확보되면서 인지도와 대외 경쟁력까지 갖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세계 인천점의 경우 전국 대형 백화점 중에서도 매출 규모가 상위권으로 지역 생산품의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 인

천점은 동종 업계 내에서 가장 높은 36.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신세계 인천점은 대규모 쇼핑센터로의 확립 현상을 우려해 지역에서 다양한 상생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서 지역 우수 중소기업 판로 확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개성공단 및 인천·부천·김포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판매전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석바위시장 우수 업체 대상 판매전'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인재균 기자 ajk@khihoilbo.co.kr

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구매 촉진 위한 간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공공구매활성화추진위원회는 20일 종합건설본부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기업인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이 여성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여성기업 제품을 의무구매하는 제도인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속 회원사의 시공 제품 및 생산 제품 등에 대한 홍보를 했다.

김종국 기자 kjk@khihoilbo.co.kr

송도서 中 웨이하이시 상품 홍보

내달 12일 전시관 개설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가 송도국제도시에 상품관을 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웨이하이시가 다음 달 12일 송도국제도시 내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에 상품관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웨이하이시는 NEATT 8층 1천700여㎡ 규모의 공간을 임대해 도시홍보관, 제품전시관, 대기입관 등을 만들 예정이다.

장후이(張濤)웨이하이시장은 다음 달 9~12일 인천을 방문해 유정복 시장을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구

체화하고 송도 상품관 개관식에 참석한다.

한중 양국은 지난 2월 자유무역협정(FTA) 가시명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를 FTA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발맞춰 인천경제청도 3월 웨이하이시와 지방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천과 웨이하이는 MOU 체결을 통해 FTA 발효 후 상호 관광상품 개발과 창업·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의료진 교류, 식품 통관기간 단축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hihoilbo.co.kr

제1회 청림인천 글쓰기 대회

청림한 세상 만들기

목 적 역사 속의 청림한 위인에 대한 탐구를 통해 글쓰기로 청림하고 정직한 청소년의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청림한 인천 만들기의 계기로 삼는다.

주 제 "청림한 세상 만들기"

일 시 2015년 05월 01일 ~ 05월 27일

참가대상 인천관내 청소년

참가방법 다산정약용, 황희정승 등 우리나라의 청림한 위인에 대한 도서를 읽고 독후감형식 및 자유수필형식의 글쓰기 원고지 5매 이상(초등 4매 이상) 표지포함 (작성 후 우편 또는 사무국 방문접수)

제출기한 2015년 05월 01일(금) ~ 05월 27일(수) 까지(당일 소인 인정)

제 출 처 푸르미가족봉사단 사무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545(간석4동 527-4))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별도 공지

문 의 푸르미가족봉사단 사무국 032)435-5353 기호일보 사업국 032)761-0007

주최 NH 인천지역본부 기호일보

주관 푸르미가족봉사단 SSN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동네방네

고양시 중소기업 환경 개선 지원

고양시는 오는 27일까지 관내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2016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대상자에 대한 신청 및 접수...

20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의 공장 진입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장 내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세탁실 포함) 등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한다.

27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뒤 현지 실태조사 및 심의를 거쳐 경기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기반시설은 개소당 도비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근로환경은 도비 1천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용인시 학일마을 '걷는 길' 조성

용인시는 처인구 원삼면 학일마을에 농촌의 전통과 자연, 문화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 걷는 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마을 걷는 길'은 총 5km에 걸쳐 마을을 둘러보며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시는 노인 선정과 함께 실시설계 작업을 마무리한 뒤 6월 초 착공할 예정이다.

학일마을은 학과 백로가 서식하는 생태 1급지 청정마을로 생태 탐방과 농촌 체험, 슬로푸드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만1천여 명이 방문해 계절별 농사 체험과 더불어 인절미·송편 만들기, 야생화 압화, 천연염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용인=우승우 기자 bison88@khihoilbo.co.kr

양주시 오늘부터 노인 건강교육

양주시보건소는 지역 노인들의 건강향상을 위해 '어르신 통합건강증진 교육'을 21~22일 양일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노인들의 심뇌혈관 질환, 치매, 우울증 예방과 자가관리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21일은 예방노인대학, 22일은 양주2동 노인대학 노인들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 ▶치매선별검사 ▶우울증 검사를 진행한다.

양주=전정훈 기자 jihun@khihoilbo.co.kr

시흥철거 사전 등록관리제 실시

시흥경찰서 옥구지구대는 지난 2월부터 세이프 하우스(SAFE HOUSE) 특수시책 중 하나로 사전 등록관리제를 시행, 사전절도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전절도 예방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기동성이 좋고 소유자의 특징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사전절도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사전절도 예방과 신속한 소유주 파악을 위해 사전 등록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 안내방송을 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절도 등록 스티커를 부착하고 차대번호를 사전 등록 시스템에 입력하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현재까지 900여 명의 사전절도를 등록, 관리하고 있다.

공은철 옥구지구대장은 "사전절도 절도가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차안만족도가 높아져 보람을 느낀다"며 "안전한 동네 조성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lee@khihoilbo.co.kr

매가박스 분당점 직장인 할인행사

성남고용노동지청은 성남·광주지역 직장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일과야생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가박스 분당점과 함께 직장인 관람객 할인 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성남고용노동지청과 매가박스 분당점은 직장인의 평일 문화생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동료·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을 통해 좋은 일터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hihoilbo.co.kr

'물고기 이동병원' 운영... 수산생물 질병 피해 막는다

도, 예산 1억7500만 원 편성... 올 말 도의회 통과 예정 내수면 지역 등 손길 닿지 않는 양식장 방문·진단 실시

경기도가 수산생물 질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어류 양식장을 위해 '물고기 이동병원' 운영을 추진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내년부터 의료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타고 수산질병진단전문가 등이 직접 양식장을 방문, 진단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물고기 이동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이동병원을 통해 어류

양식장을 돌며 사육되고 있는 물고기의 질병을 진단하고, 어민에게 수산질병으로부터 어류를 보호할 수 있는 상담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이동병원은 이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보니 도내 내수면 지역까지 진단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이를 벤치마킹하기로 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해마다 양식장 예찰

등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그간 이동진료 장비가 부재함에 따라 즉각적인 현장 점검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해당 예산이 올해 말 도의 회를 최종 통과하면 도는 이동진료 차량을 제작, 필요 장비를 구매해 물고기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진료장비가 실린 차로 현장을 찾아가 바로 검사를 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산생물 질병으로 인한 양식어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피해 최소화 및 각종 수산생물 질병 관련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hihoilbo.co.kr



구리시가 고구려의 숨결이 살아있는 아차산에서 '구리둘레길 에코티어링' 행사를 진행한다.

미션수행 결들인 산행 색다르네

구리둘레길 에코티어링 행사 아차산 문화·생태체험 '눈길'

구리시는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고구려의 숨결이 살아있는 아차산에서 '구리둘레길 에코티어링' 행사를 진행한다.

'에코티어링'은 생태라는 의미의 '에콜로지'와 지도로 목적지를

찾는 게임인 '오리엔티어링'의 합성어로 단순히 둘레길을 걸으며 생태학습을 하는 수동적 참여 방식에서 벗어나, 행사 참여자 구성원들이 스스로 생태퀴즈도 풀며보고 코스별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며 환경보호활동도 함께하는 자율 참여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됐다.

행사는 지난 17일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매월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는 1365 자원봉사 포털사이트

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이번 행사엔 구리시뿐만 아니라 인근 서울·남양주 학생과 주민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아차산의 생태와 역사 해설을 위해 구리 환경해설가들에 의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구리둘레길 걷기 활성화를 위해 역사·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아차산을 배경으로 다양한 문화·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구리시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hihoilbo.co.kr

청소년들 욕설·은어 이제 그만 안양 예쁜말 고운말 쓰기 운동

바르게살기협 발대식 가져

안양시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예쁜말 고운말 쓰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가 주관하는 이 운동은 최근 언어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범시민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쁜말 고운말 쓰기 운동'은 초·중학교를 순회하며 바른말 사용과 교내 폭력 근절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역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에서 '예쁜말 고운말 쓰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통달거리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교육 일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앞서 지난



안양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18일 안양시청에서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쁜말 고운말 쓰기 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18일 안양시청에서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쁜말 고운말 쓰기 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이필운 시장은 "최근 디지털 통신기기 발달과 함께 청소년들의 일

상 대화가 언어폭력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며 "어려서부터 바른 말을 쓸 수 있도록 잘 지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안양=이정택 기자 jilee6151@khihoilbo.co.kr

주민 온정모아 채운 '희망공간' 남양주 진접읍 행복나눔마켓

남양주시 진접읍사무소와 진접읍복지넷이 민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행복나눔마켓'을 개소했다.

행복나눔마켓은 지역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의류와 식료품 등을 자율적으로 기부·연결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선택적으로 수령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스템이다. 개소식에는 주민 350여 명이 참

석해 한마음으로 성공을 기원했으며,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펼쳐 온 '광릉주먹고기' 김은하 대표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특히 진접읍 복지넷 특화사업인 이 사업은 정부 지원 없이 주민의 힘만으로 구축, 획기적 복지시스템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진접읍 역시 매월 셋째 주 화요일 행복나눔마켓과 더불어 외식 지

원 서비스와 이·미용 서비스, 혈압·당뇨 검진 등 보건상담과 직업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현용 진접읍장은 "북부권역에 푸드마켓이 없어 대산자가 다른 지역으로 찾아가는 불편이 있었는데, 행복나눔마켓 개소가 시원하게 해결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hihoilbo.co.kr

시흥 도일시장·모랫골마을, 도시정비 주민 워크숍 가져

시흥시가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도일시장과 모랫골마을을 위한 주민 통합 워크숍을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워크숍 및 소속감 향상을 통한 공동체 의식 증진, 공동의 체력과 도전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참여식 워크숍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공유 및 향후 발전 방향을 토론할 계획이다.

모랫골마을의 경우 지난 2014년

부터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며, 도일시장은 올해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일시장 주민계획회 김정식 씨는 "워크숍을 통해 시흥시의 도시재생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내가 사는 마을을 바라보는 객관적 토론을 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마을계획 실현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

견을 피력했다. 이번 워크숍은 모랫골마을의 평생학습 운영기관인 시흥시 작은자리 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개최되고, 워크숍 장소는 도일시장의 마을작가인 홍남기 작가의 추천으로 경기도청차센터에서 개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도일시장 주민과 모랫골마을 주민들의 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각 마을의 발전과제를 실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lee@khihoilbo.co.kr

용인중앙시장 골목에 울려 퍼질 '반반 무많이'

시, 통닭특화거리 조성 추진 입주 입주 자금알선 등 지원

용인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에 '통닭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통닭거리 조성 예정지역은 용인중앙시장 순대골목 맞은편 현대마트 골목이다.

시는 골목길 포장, 가로등 정비, 간판디자인 교체 등을 통해 거리를 깔끔하게 정리한 뒤 통

닭 특화거리 업종에 맞는 입자인을 모집, 영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젊은 창업자, 통닭 관련 경험자, 전업 희망자 등을 우선 대상으로 15개 안팎의 점포운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특화거리 입주 입주에게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일정 기간 동결하고 창업·운영자금 알선, 홍보, 교육 등을 통해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입주 희망자 상담은 오는 31일까지 용인중앙시장상인회(☎031-336-1110)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

행한다. 용인중앙시장은 매장면적 7만4천826㎡, 점포 수 536개, 종사원 수 1천882명 규모의 전통시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와 상인회, 사업대상자 건물주가 상호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해 효율적으로 특화거리를 조성·운영할 방침"이라며 "통닭거리의 먹거리 다양화는 물론 쇼핑객 유인과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우 기자 bison88@khihoilbo.co.kr

포천 고속도로 연계 문화관광 활성화

시, 구리~포천 민자도 활용 지역발전 연구용역 보고서 제2외곽순환로 구간 나들목 추가 설치 등 개선방안 제시

포천시는 지난해 9월 착수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를 활용한 지역발전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김한섭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개통에 대비해 지역개발 구상방안,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교통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경기연구원의 분야별 연구

위원이 8개월 동안 연구했으며, 포천시에 처음으로 건설되는 고속도로를 활용해 지역 발전을 극대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지역개발 구상 방안과 관련해 김군수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장은 가구산업종합지원센터 및 공동전시판매 물류센터 건립, 녹색기술산업단지 조성,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명장빌리지 조성 등을 제안했다.

또한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수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관광인프라 조성 및 확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이벤트 기획, 자연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종합방문자안내센터 설치, K-디자인빌리지 유치, 선도적인 지역축제 개발, 버스관광 전용상품 개발, 대표 먹거리를 기반으로 한 음식연계 관광 활성화 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지우석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장은 교통 분야와 관련해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후 포천시 주요 교차로에 대한 분석, 포천지역 고속도로 진출입로(나들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

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정부와 사업자 간 실시협약이 진행 중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에 추가로 나들목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분석했다.

2011년 국토교통부에서 제3차 공고를 통해 선정된 노선(안)은 포천시 내촌나들목이 유일해 연구가 밀집돼 있는 소흘읍·가산면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결과 소흘읍 고교리 인근에 나들목을 설치하는 방안을 최적으로 선정했으며 '서울~춘천 고속도로', '당진~대전 고속도로' 등의 사례를 분석해 고속도로 개통



포천시는 19일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활용에 대한 연구용역보고회를 가졌다.

후 포천시 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는 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며, 추가 나들목 설치와

같이 정부에 건의하거나 국비 등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김영우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3015@khihoilbo.co.kr



가평군은 20일 행복택시 발대식을 갖고 버스정류장과 멀리 떨어진 10개 마을에 운행을 시작했다.

가평군 '1100원 행복 택시' 출범 버스승강장 먼 10개 마을 혜택

날짜 등 주민 요청 가능 군, 운행지역 늘릴 방침

시내버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운행한다. 이른바 행복택시가 등장해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평군은 20일 오전 군청 광장에서 행복택시 발대식을 갖고 1천100원만 내면 읍·면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김성기 군수, 조중운 군의회 의장, 박성규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가평군조합장,

군의원, 노인회, 주민, 개인택시 업계 관계 및 운수 종사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희망과 행복을 실은 행복택시 운행을 축하했다.

행복택시는 주민들이 요청한 날짜와 시간, 운행 구간에 따라 주 2~3회 운행된다. 행복택시

를 이용하고 난 뒤에는 바로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또 업무(일)가 끝나면 다시 행복택시를 탈 수 있어 마음 편히 일을 볼 수 있다.

행복택시는 우선 가평읍 개곡2리 줄길마을, 설악면 방일1리 양방, 북면 백둔리 죽터마을 등 버스 승강장과 700m 이상 떨어진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군은 희망택시 호응도와 선호도를 분석해 행복택시 운영 지역을 늘려 간다는 방침이다.

가평=엄건섭 기자 gsm10@khihoilbo.co.kr

수리산 송전탑 10월까지 철거

군포시, 한전과 협의의 마쳐 지중화 사업 등 연내 완료

제3경기도립공원인 군포시 수리산 풍광의 오염이자 군포시민들이 사라질 기원했던 고압 송전탑이 5개월여 뒤엔 말끔히 철거된다.

군포시는 20일 산본동 일원 주민과 인근 학교 학생들이 제기 중인 고압(154kV) 송전선로에 의한 전자파 피해에 대해 오는 10월 말에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도시 생활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한국전력과 협력해 추진 중인 송전선로 지중화 및 송전탑 철거사업이 올해 안으로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한전과 수리산 일대(군포시수도사업소 뒤편~초막골공원 양어장 입구) 3.94km 구간의 송전탑 19기를 철거하기 위한 공사일정 및 추진계획 협의를 마무리했다.

김호택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주부터 시작해 10월 말까지 고압 송전선로(철탑) 철거를 완료하려 한다"며 "안전과 환경보존을 최우선 원칙으로 지켜 시민 속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10년 2월 해당 사업을 착공했고, 2014년 말에는 군포시수도사업소부터 초막골공원 양묘장까지 구간의 송전선로 매설 작업(지중화 관로 매설 및 맨홀 설치)을 완료했다.

군포=박완규 기자 wkp@khihoilbo.co.kr

등네반네

하남시 30일 사랑의 책 나눔행사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교범 하남시장, 이하 센터)는 자발적 도서 기증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기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20일 센터에 따르면 오는 30일 하남시청 앞 근린공원에서 '사랑의 책 나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를 위해 센터는 지난달부터 각 가정에서 잠자고 있던 도서들을 기증받고 있으며, 행사 중에는 도서를 기증받고 교환도 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동화 속 캐릭터 그리기, 캐리커처, 네일아트, 풍선아트, 로봇체험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는 기증받은 도서를 관내 작은도서관 7곳 및 미사초·미사강변초 등 신설 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문의: 하남시자원봉사센터 ☎031-790-6860~1

하남=이홍재 기자 hj@khihoilbo.co.kr

성남 수도개량 공사비 상향 지원

성남시는 그동안 낡은 급수관 개량 공사비의 50% 이하, 최대 60만 원까지 보조하던 지원금을 지난 4일부터 개정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해 공사비의 80%,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은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수도 개량 지원 예산은 도비 6천93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7천130만 원이며, 예산 소진 시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중공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낡은 주택 ▶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재질인 경우 ▶수질검사를 결과 마시는 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hihoilbo.co.kr

고양 마트서 화재대피 종합훈련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셋째 날인 20일 고양시 행신동 롯데마트 고양점에서 '시민체감형 화재대피 종합훈련'이 실시됐다.

이날 훈련에는 롯데마트 고양점 직원과 민방위대원, 지역주민, 고양소방서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현장에서 직접 재난상황이 연출된 가운데 긴급 대피, 초기 화재 진화, 응급처치 등 사태 수습 전 과정의 현장감 있는 안전 대비 체감훈련으로 진행됐다.

또한 훈련 뒤 고양소방서는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시민생활 안전체험 교육도 실시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고양에 선인장·다육식물 전시마당

오늘부터 5일간 화정역서 수출상품관 등 테마별 구성

국내 화훼류 중 선인장과 다육식물 분야에서 최고의 수출고를 기록하고 있는 고양시가 21일부터 5일간 덕양구 화정역 광장에서 '2015 고양 선인장 한마당 전시회'를 연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관내 화훼농가의 주력 수출품목인

선인장의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영농소득 증대 및 선인장 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선인장을 주제로 다양한 정원과 포토존이 꾸며진 가운데 ▶선인장과 다육식물관 ▶회귀 선인장 전시관 ▶점적선인장 수출상

품관 등 테마별 전시관이 구성됐다.

또한 선인장 천년초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와 재배 체험, 축하공연 등 부대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시는 FTA 등 약조건 속에서도 '2015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화훼수출액이 3천358만 달러를 달성하

며 4년 연속 3천만 달러 이상의 화훼수출고를 기록하는 기업을 도왔으며, 지역내 화훼농가의 주력 상품인 선인장과 다육식물 분야의 순수 수출계약고만 1천400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성남시노인보건센터는 오는 27일 성남시노인복지센터에서 치매관리단 '울리사랑'의 개소식과 성남시 치매 관리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성남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노인들의 치매 정복을 위해 창단한 치매관리단 '울리사랑'은 '함께해요 치매, 기억해요 성남'이라는 표어 아래 성남시 치매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소식은 성남시치매관리단의 경과보고와 현안 제막식으로 진행

된다.

심포지엄에서는 정운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구성수 중원구 보건소장, 윤종철 경기광역치매센터장, 김승현 성동구치매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해 '치매관리의 국가정책 및 방향', '지역 치매지원센터의 정책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초강연을 한다. 이어 성남시 치매 관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hihoilbo.co.kr

김포시 공고 제2015-616호

김포시 서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 열람공고

1.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58-22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1일
김 포 시 장

1). 구역 명 : 서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단위계획)구역(관려도서 및 도면계제 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서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단위계획)구역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58-22번지 일대	-	증)18,490	18,490	-

나)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8,490	-	18,49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8,042	-	18,042	97.6	
	일반상업지역		448	-	448	2.4	

3). 주거환경관리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7항에 의한 정비구역의 의제에 관한 사항)
가) 구역명 : 서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나)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서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단위계획)구역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58-22번지 일대	-	증)18,490	18,490	-

4).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개발과, 통진읍사무소 민원실
6). 열람도서 : 서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
7). 도면 및 관련도서 비치
- 김포시청 도시개발과, 통진읍사무소 민원실에 열람도서 비치
8). 의견제출기관 : 김포시청 도시개발과(☎980-5514, FAX 980-5519), 통진읍사무소 민원실(☎980-5406, FAX 980-5540)

생/고/기/전/문/점

새 텃밭

국비산 100% 정육점 직영 운영

고객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 항정살
- 생삼겹살
- 등심
- 누룽지
- 가브리살
- 갈매기살
- 차돌박이
- 된장찌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2동 601-1

예약문의 813-5492

NAVER 검색결과 새 텃밭 등 리뷰서로

녹색경영산책

최경환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훗날 발견된 일기장에 남긴 유명한 일화가 있다. 사랑했던 여인이 청혼을 했으나 그는 생각하는 시간을 달라고 했다. 결혼을 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 철학적 분석을 하느라 무려 7년이나 걸렸다. 그 결과 결혼을 해서 좋은 점 354가지, 나쁜 점 350가지라는 결론을 얻었다. 좋은 점이 4가지 더 많기 때문에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그 여인의 집을 찾았으나,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뒤였다. 그 후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한다.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다. 불교에서는 인연(因緣)을 겁(劫)으로 비유한다. 1겁의 시간은 물방울이 떨어져 집 한 채만한 바위를 없애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힌두교에서는 43억2천만 년을 1겁이라고 한다. 특히 부부가 되려면 7천 겁의 인연을 거듭해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영겁(永劫: 無始無終의 영원한 세월)만큼이나 길고도 길

둘이 하나가 될 때

은 인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혼의 실상은 불가에서 의미하는 본질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MBN 뉴스(2015년 4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한 부부가 하루 평균 316쌍이었다고 한다. 또 결혼을 기피해 노총각·노처녀가 넘쳐나는 '결혼 안 하는 대한민국'이 돼 가고 있다. 지난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은 부부는 11만5천 쌍이었다. 계속해서 줄어든던 이혼 건수가 최근 3년간 다시 높아지고 있다. 바로 황혼이혼 때문이다. 3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율이 한 해 전보다 무려 10% 넘게 늘어 증가 폭이 10년 전의 2배를 넘어섰다. 불만과 갈등이 있지만,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로 참고 살다가 아이들이 다 성장한 뒤 갈라서는 것이다.

이제 이혼이 무조건 참고 이겨내야 하는 문제가 아닌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과정으로 인식해야 할 때다. 최근에는 '이혼 플래너'라는 신종 직업까지 등장했다. 언뜻 용어만 보면 이혼을 부추기는 직업이 아닐까 생

각했는데 이혼에 직면한 위기의 부부 문제를 예방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고, 최소한의 비용과 최소한의 심리적인 부담을 위한 이혼 플랜을 세워 주는 일을 한다.

영국 LAT(Living Apart Together)족은 결혼 또는 사실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유지하지만, 같은 집에 살지 않고 서로 다른 집에 거주하는 부부들을 의미한다. 서로 가까운 곳에 살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 도움을 주거나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등 특별한 관계를 유지한다. 서로의 성격, 취미, 습관 등 살아가는 생활 가치관이 다른 부부간의 갈등을 피하면서 각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인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부부가 대표적인 LAT족이다. 일부에서는 별가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영국 LAT족은 200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듯 '결혼해도 괜찮아'란 책이 화제가 되고 있다. '결혼해도 괜찮아'란 말에는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들어 있다.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 첫 여성학자

인 박해란 교수다. 올해로 70세 나이인데, 45년의 자신의 결혼생활을 진흙탕에 비유하며 "부부가 함께 빠지면 진흙탕도 높아져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 특히 이 책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결혼정년제도' 제안을 파격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결혼생활에도 정년을 둔다면 좀 더 서로가 아끼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관계가 지속되지 않을까. 결혼한 후 20년이 정년인데, 자녀들 다 키운 시기에 결혼기간의 시효가 소멸된다. 이혼할 경우도 정년이 끝나면 깨끗이 헤어질 수 있고, 부부가 합의하면 정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이색적인 제안이지만 왠지 쓸쓸한 기분이 든다.

5월 21일 오늘은 부부의날이다. '21일'이란 숫자는 둘(2)이 하나(1)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 넓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널 만난 건 내겐 너무 특별해. 둘이 하나될 수 있도록, 둘이 하나될 수 있도록, 어떤 현실도 서로 참아 낼 수 있어. 너 없는 이 세상은 생각할 수도 없어. 내 목숨만큼 널 사랑해..." 가수 김종환의 '둘이 하나되어'란 부부의날 노래다. 노랫말처럼 둘이 하나돼서 부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날이 됐으면 한다.

(**<녹색경영연구원 교수>**)

시해안 전국장애학생체전

우리 꿈나무들의 인간 승리 드라마가 제주에서 펼쳐지고 있다. 19일부터 22일 까지 5일간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지역이며 보물섬, 관광도시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장애학생들의 희망과 꿈의 축제인 제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이하 장애학생체전)가 열리고 있다. 비록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요인으로 몸은 불편하지만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열정과 의지가 가득하다.

2006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란 이름으로 시작돼 2007년 장애청소년기 능경기로 대체됐다 2008년 2회 대회가 치러졌다. 2009년 이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회는 육상·보치아·골볼·역도·축구·수영·탁구·농구·배구·실내조정·e스포츠(이상 정식종목)·볼링·배드민턴(이상 시범)·플로어볼·디스크골프(이상 전시·신설) 등 15개 종목에서 장애학생 선수들은 그간 갖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인간 승리 드라마를 쓴 우수 선수들은 국가대표로 발탁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이 대회는 국가대표로 가는 등용문이기도 하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에게 장애인체육과 지역의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종합 체육행사이기도 하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역경을 넘어 구슬땀을 흘려 온 선수 여러분 모두가 이번 대회의 주인공이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스포츠맨이기 때문이다.

우리 장애학생들이 역경을 넘어 더욱 큰 꿈과 미래로 나가도록 온 국민이 경기장울 찾지 못하더라도 마음만이 라도 여러분을 응원과 응원하자.

<심인규 기자>

자치플라자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정착을 바라며

문영미

동에 비해 1.7배 증가했으며, 체계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일반 병동에 비해 환자의 욕망 발생률은 75%, 낙상 사고는 19%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환자들은 보호자와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아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와 안정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일반 병동보다 10% 이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를 건강보험 수가에 적용하는 시범사업 실시를 확대한다고 한다. 인천에서는 인하대병원과 인천의료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되고 있다. 시범사업 병원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을 별도로 운영하고 환자는 현행 입원료 대신 '포괄간호병동 입원료'를 지불하게 되며, 그럴 경우 현행 입원료를 하루 3천 800~7천450원을 추가 부담하면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입원생활이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한 예로 대정암으로 종합병원에서 7일간 입원해 7일간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56만 원(1일 8만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포괄간호서비스로 적용되면 7일간 3만9천 원(1일 5천600원)으로 간병비가 93% 감소된다.

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많은 병원의 관심과 참여 속에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계획대로 정착돼 모든 환자가 전문 간호인력에 의한 간병을 받으면 서 환자와 가족들이 더 이상 간병비로 고통받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해 빠른 쾌유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인천시 남구의회 의원>

기호일보 www.kihoilbo.co.kr

등록번호 인천가100001
1988년 7월 20일 창간

회장·발행인 서강훈 / 편집·인쇄인 한창원 / 편집국장 전기식 경기본사 편집국장 정훈영

인천본사 032-761-0001 / 032-761-0015 / 인천시 남구 인종로5 정산빌딩 9층
경기본사 031-898-6767~8 / 031-898-6769 /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29 연합뉴스 빌딩 4층
경기북부본사 031-872-2990 / 031-872-2991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9번길 관건축 3층

구독신청 032-761-0007	편집국 팩스 032-761-0011	전산실 032-761-0009
판매국 032-761-0008	경영·사회부 032-761-0004	제판부 032-761-0013
보급문의 032-761-0002	문화·체육부 032-761-0005	출판부 032-761-0008
	편집부 032-761-0006	포도기호 032-761-0001

검 단 032-563-0022	중 구 032-772-4909	부 천 010-5356-8211	신 갈 031-285-2283
계 양 032-547-5947	강 화 010-3330-5204	서 울 02-313-5962	처 인 031-333-1112
남 구 032-882-2547	가 평 031-582-0478	성 남 031-757-8948	의 정 부 031-845-4200
남 동 032-421-1966	고 양 031-962-5360	수 원 011-242-6004	이 천 031-634-3312
동 구 032-764-2775	인 양·과 천 010-6354-3259	시 흥 010-3218-8724	파 주 031-941-4513
부 평 032-526-9400	광 명 02-2688-3239	안 산 010-5313-5329	평 택 031-652-9966
석 남 032-576-4191	광 주 010-5204-3470	안 성 031-652-9966	포 천 031-535-5806
송 도 032-831-0797	구 리 010-6361-8608	양 주 031-845-4200	하 남 031-793-4142
연 수 032-811-6911	군 포·의 왕 031-394-0446	양 평 010-8916-2106	발 안 031-352-5265
연 안 032-887-7355	김 포 031-997-3030	여 주 031-885-3627	봉 답 031-297-8086
연 회 032-561-4189	남 양 주 031-511-4434	연 천 031-834-1307	화 성 010-9274-3466
영 중 032-743-2990	동 두 천 031-865-2557	오 산 010-9274-3466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0,000원 / 1부 500원

외부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호 漢字成語

孟宗泣竹(맹종읍죽)

조만 맹/조마루 종/泣 울음/竹 대죽

맹종(孟宗)이 병든 노모(老母)를 위해 한겨울에 죽순을 구해 드렸다는 효(孝)이야기다. 맹종은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 사람이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병든 노모를 봉양할 때다. 노모가 죽순이 먹고 싶다고 말하자 한겨울에 죽순이 있을 리 만무했다. 맹종은 눈이 쌓인 대밭으로 가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엉엉 울었다. 그러자 맹종의 눈물이 떨어진 곳에 눈이 녹아 대나무 순이 돋아났다. 하늘이 감복한 것이다. 맹종이 하늘이 내린 죽순을 끓여 어머니에게 드시게 하자 어머니의 병환이 말끔히 나았다는 고사다. 맹종설순(孟宗雪筍)이라고도 한다. 맹종의 원산지는 중국이다. 맹종의 특징은 초록에 매듭이 흰 줄로 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남 거제도과 고창읍성, 담양 죽녹원에서 볼 수 있다 한다. (鹿鳴)

송월타월 |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 329-54
TEL:661-8398 FAX:661-8397

소중한 마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선물

작업복 공장직영 단체복, 작업복, 타올 도매전문업체

각종 행사타올, 기념타올, 패션타올, 사우나타올 전문·제조

SONGWOL TOWEL

인천떡집

각종 떡 도매 납품 전문

케 신 폐 잔 회 생 개 백
익 행 백 치 갑 일 업 일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떡

인천광역시 부평구 심정2동 399-8
TEL: (032) 433-0763
H.P: 011-332-5621

지난 13일 세계적인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3년 기준으로 전세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이 723명인데, 이 중 한국인이 669명으로 92.5%를 차지한다”며 오는 11월 1일 세계 평화수감자의 날에 맞춰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단원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인들에게서 ‘인권후진국’이라는 비판과 조롱을 받고 있으니 부끄럽고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2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9)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헌법에서는 국방의 의무보다 양심의 자유가 우선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10년간 (대체복무제 마련 등)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방의 의무는 전투

이선신의 아침노크



‘대체복무제’ 시급히 마련해야

원본 아니라 경찰 재해방직업무, 공익근무, 사회복무 등 대체복무를 포함한 의미”라며 “대체복무를 수용하면서 그 기간과 근무 여건 등의 부담평형을 고려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려낼 수 있다”고 밝혔는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남한과 북한이 팽팽한 군사적 대치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현실 하에서 국방의 의무의 이행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위한 이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를 빚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양심의 자유’는 양심에 반해 어떤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데, 이는 정신적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기본 임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무가 조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7년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었지만, 이듬해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뒤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대체복무제 등 보완책이 없다 보니 2000년 이후 올해 3월까지 징역형이 확정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만 9천 934명에 달한다고 한다. 병역법은 정당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88조), 법원은 병역거부자들에게 보통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유가 어떠한 수 많은 대한 청년들이 젊은 날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하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근본적 대책의 마련을 게을리하는 것은 정부

의 역할을 방기(放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공권력의 불행사(부작위)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본다.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법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헌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었는데, 당시 결정 이후 올해 3월까지 동일한 취지로 다시 헌재의 결정을 구하는 유사 심판사건이 총 7건에 달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하고도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12년 프랑스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한국 청년 이예다(24)씨의 사연을 듣고 난민 지위를 인정해 망명을 허용한 바 있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해외 망명이 줄을 잇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우리나라가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양심의 자유에 관한 보편적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시급히 대체복무제 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조장하게 된다”는 반대론자들의 우려를 해소시키고, 병역이 대체복무보다 손해를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복무제를 정교하게 잘 설계해야 할 것이다. <충남대학교 교수/법학박사>

시 설

매립지 연장, 인천시 주도 전제돼야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연장’ 입장을 공식화했다. 유정복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사용 종료 공약을 내건 지 1년여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시는 지난 19일 인천시의회 수도권매립지 시의원 총회에서 2016년 매립 종료는 현실적이고 합리적 대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수도권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방안 모색과 대체매립지 조성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의 실현 가능성부터 따져 봐야 한다. 그동안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여부를 놓고 뽀족한 해결책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당초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고 해 왔지만 대체매립지 조성이 쉽지 않은데다, 사용 연장 쪽으로 전환할 경우 인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 뻔히 예상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시가 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체 쓰레기 처리가 가능한 대체매립지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여기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려면 부지 조성비용과 소각 및 슬러지 시설 건립 등 2천400억여 원의 시 자체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 극심한 인천시의 재정난과 지역의 반대로 대체매립지 조성

이 쉽지 않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으로 대체매립지 조성보다는 연장 쪽으로 방향이 잡혀질 것이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가능했다. 시가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난을 감안할 때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체매립지 조성비용 조달 어려움과 현실적으로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매립기간 종료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더구나 국회까지 나서서 ‘기간 연장’을 결단해야 한다며 인천시를 압박하고 있고, 4차 협의회 협의가 결렬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직권 연장 등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도 고려됐을 것이다.

매립지 문제는 인천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타 지자체가 맞물려 있는 사안인 만큼 좀 더 면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2014년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천시로서는 연장을 하더라도 시가 주도권을 갖고 연장시한을 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이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인천시와 서귀지역의 발전 기회 전환과 매립지 주변의 미래 가치 실현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

결국 인상되는 경기도 버스요금

경기도내 버스요금이 이달 말 인상될 전망이다.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을 기하고는 있지만, 버스요금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책을 언제나 요금 인상에서 찾곤 하는 업계와 교통당국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9일 열리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버스요금 인상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실상 인상 절차는 거처는 것이다. 그동안 끌어오던 도의 버스요금 인상 시기는 다음 달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상 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서울과 인천시의 인상 폭에 맞춰 일반형의 경우 150~200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 1안은 일반형 150원, 좌석형 250원, 직행좌석형 400원이다. 2안은 일반 100원, 좌석 300원, 직행좌석 500원, 3안은 일반 200원, 좌석 250원, 직행좌석 400원을 각각 인상한다는 방안이다.

지금의 도내 버스요금은 일반형 1천100원, 좌석형 1천800원, 직행좌석형 2천 원이다. 경기도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연초에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실업자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있다. 이 같이 어려운 경제 형편으로 인해 가정경제에 주름이 더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다. 그리 넉넉한 지자체는 없는 줄 알고 있다. 행정에 있어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살피고 점검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서민에게 부담이 가는 공공요금의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기 바란다.

서구의 경우 공공요금의 잦은 인상은 정권의 교체까지 가져온다. 국민이 편하게 잘 살아야 선진국이다. 생활고를 겪으면서 사는 국민들이 태반이라면 그 나라는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결코 선진국이 아니다. 세수부족을 무조건 손쉬운 공공요금 인상으로 메우려 하는 발상이라면 곤란해서 하는 말이다. 금후로 교통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 인상 시 서민의 경제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7년 전 무더운 여름, 곰팡이가 가득 피어 집 안 가득 악취가 진동하는 인천의 작은 반지하 방에서 홀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경민(가명)이를 처음 만났다. 그 당시 경민이를 혼자 키우던 시각 장애인 아버지가 시설에 입소한 후 경민이는 홀로 방치된 상태였다.

12년 전만 하더라도 경민이는 아동 시설에 입소해 보호를 받거나,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다. 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2003년부터 시행된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생겨나면서 경민이는 일반적인 가정의 품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가정위탁이란 친부모의 사망·질병·이혼·수감·가출·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들이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위탁돼 안전하게 양육과 보호를 받도록 하는 대표적인 아동보호제도의 하나이다.

가정 내에서의 보호가 어려운 경우 과거에는 시설에 입소하거나 미성년 아이들이 독립해 홀로 살아가면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시설 양육의 경우 많은 아동들이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장기에 필요한 개별적인 관심

열린광장



여승수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입니다

을 받지 못해 적절한 애착 형성이 쉽지 않다. 또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보호받아 할 아이들을 사회가 방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가정위탁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정위탁은 아이들이 친가정과 유사한 양육환경에서 적절한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원(친)가정 복귀를 전제로 친부모가 다시금 아이를 맡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위탁 보호를 한다는 점에서 입양과는 맥을 달리 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원하지 않는 위기를 경험하면서 심리·정서적으

로 매우 위축된 아이가 짧은 시간 안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친부모 역시 상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아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가정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나타난 시점에 아동 보호를 줄 위탁 부모와 가정을 적절하게 연계해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가정위탁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해 위탁 부모의 수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가정위탁을 신청해 대기 중인 예비 위탁부모가 25쌍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올해 4월 기준으로 경민이와 같이 가

정위탁보호제도를 통해 보호 중인 인천지역 아동은 총 708명이다. 이 중 21%에 해당하는 146명이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영·유아 또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이다. 또 전국 가정위탁의 약 70%는 아직도 조부모들이 맡고 있다. 혈연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 가정의 관심과 신청이 필요하다.

피지 못할 이유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이 친가정과 유사한 양육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고, 그런 가정에서 안전하게 자라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탁부모로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나타난 시점에 아동 보호를 줄 위탁 부모와 가정을 적절하게 연계해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가정위탁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해 위탁 부모의 수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가정위탁을 신청해 대기 중인 예비 위탁부모가 25쌍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매년 5월 22일은 가정위탁을 활성화 하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모으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가정위탁의 날’이다.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이다.

<조류유산 어린이재단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소금 名家
자연이 만든 천연식품

소금가공 및 유통전문기업

PREMIUM PURE SALT

도염원

www.salt.co.kr

“먹거리의 기본은 [소금]입니다”

[도염원]은 소금으로 소비자의 입맛과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소금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깨끗한 소금을 만드는 회사 도염원입니다.

국내 200여개의 우수식품회사와 단체급식 전문회사에서 도염원 소금을 선택하였습니다. 도염원이 만드는 소금은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미국 및 유럽, 캐나다, 일본 등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90-5(시화공단 5바 818호) TEL.031)433-8880 FAX.031)319-9778

몽니·민트그레이 한 무대에서 본다

내일 구리아트홀서 합동 공연 인디밴드 스탠딩콘서트 시리즈

모던록밴드 몽니와 민트그레이가 22일 구리아트홀에서 합동 콘서트를 펼친다. MBC '나는 가수다'에서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주목받은 몽니와 얼마 전 새 싱글을 낸 민트그레이는 그간 다양한 인디 페스티벌에서 관객의 큰 호응을 받아왔으며 다시 구리에서 한 무대에 선다.

몽니는 두터운 팬층과 티켓파워를 자랑하는, 애절하면서도 강렬한 사운드를 모두 보여주는 팔색조 같은 매력을 지닌 모던록 밴드다. 이에 반해 민트그레이는 민트색처럼 밝고 그레이색처럼 서정적인 음악을 표

방하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섬세한 가사로 일상의 소소함을 음악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구리아트홀이 문예회관 최초로 선보이는 인디밴드 스탠딩 콘서트 기획시리즈 '인디스탠 소극장 콘서트'의 일환이다.

"인디스탠 소극장 콘서트"는 관객이 무대 가까이에서 아티스트와 함께 호흡하며 공연의 생동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공연장예 발표가 뜬 20~30대 젊은 관객층의 호응이 기대된다.

몽니+민트그레이 콘서트 예매는 구리아트홀 홈페이지와 인터파크티켓에서 가능하다.

문의: 구리아트홀 홈페이지 참조, ☎ 031-550-8800~1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hihoilbo.co.kr



인디밴드 몽니(위)와 민트그레이(아래).



트로트가수 박현빈 8월 품절남 합류

트로트 가수 박현빈(33)이 오는 8월 결혼한다. 소속사 H.I엔터테인먼트 측은 20일 "박현빈이 8월 8일 낮 12시 서울 광진구 광장동 위커킬호텔 비스타홀에서 4살 연하 김모 씨와 백년가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피양세 김씨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재원으로, 박현빈과 5년간 비밀리에 사랑을 키워왔다. 결혼식 주례는 전진국 KBS아티비전 사장이 맡았으며 축하와 사회는 정해지지 않았다.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앞으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현빈은 2006년 싱글 음반 '빠라빠라'로 데뷔한 후 '굳든데 만드레', '사방사방', '오빠만 믿어', '대찬인생', '앗! 뜨거', '춘향아' 등을 히트시키며 사랑받았다.



NIB 남인천방송 편성안내 채널 4

- 07:30 네트워크 인천
- 09:30 우리 창업했어요
- 11:00 동네방네 스타노래방
- 14:00 복시터 인천
- 18:00 NIB초대석
- 22:30 우리동네 릴레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문의 OBS(032-670-5130) KBS(02-781-1800) MBC(02-780-0015) SBS(02-2113-3190) EBS(02-526-200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1	KBS 2	MBC	SBS	OBS	EBS	
5	5:00 KBS 뉴스 5:10 내고향 스페셜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KBS 네트워크 특선 11:55 바른말 고운말	6:00 2TV 아침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TV 소설 (그래도 푸르른 날에) 9:40 여유 만만 10:40 이국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10:50 지구촌 뉴스 11:10 수목 드라마 (복면검사)	5:00 MBC 뉴스 5:10 건강플러스 6:00 MBC 뉴스투데이 (1~2부) 7: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MBC 생활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1:00 주말 드라마 (여자를 울려-9화-)	5:00 SBS 뉴스 5:10 굿모닝 510 6:00 모닝와이드 (1~3부) 8: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9:10 2015 서울 디지털 포럼 기조연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웃찾사 스페셜	6:00 리얼대탐험 (심연의 악마들) 6:50 TV 주치의 7:05 독특한 연예 뉴스 7:45 OBS 뉴스 8:15 시트콤 (오포졸) 8:45 체인지 라이프 (덕덕&스타) 9:45 OBS 뉴스 10:05 드라마 극장 (만이) 11:15 Music & Movie 11:45 OBS 뉴스 (경인투데이)	5:00 EBS 생활영어 40 만나고 싶습니다 6:10 세계의 눈 7:00 뼈에 친구들 45 꼬마버스 타요 8:00 당동당 유치원 35 방귀대장 뽕뽕이 50 코코몽3 9:05 원더볼츠 20 풍선코끼리 발루보 40 달라졌어요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0	12:00 KBS 뉴스 1:00 양코르 대하드라마 (대조영) 1:55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 2:00 제14회 밀양아리랑 가요제 3:15 TV 책을 보다 3:55 튠튼생활 체조 4:00 오늘의 경제 4:10 나, 출근합니다 5:00 KBS 뉴스 5:20 시사진단	12:10 버타민 1:10 생활의 발견 2:00 KBS 뉴스타임 2:10 인간극장 스페셜 2:50 한국의 밤상 3:45 후토스 4:10 자동차부품상 위키 4:40 TV유치원 콩다콩 5:10 코파 반장의 동화 수사대 5:40 동물의 세계	12:00 MBC 정오뉴스 12:20 주말드라마 (여자를 울려-10화-) 1:25 휴먼다큐 사랑 10주년 (안현수, 두 개의 조국 하나의 사랑 2부) 2:30 특? 특! 키즈스쿨 3:00 MBC 뉴스 3:10 보름달 공장 3:40 헬로키키 아하! 동물탐험대 4:25 MBC 일일 특별기획 (딱 너 같은 말) 5: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뉴스 12:45 2015 서울 디지털 포럼 하이라이드 1:55 날씨와 생활 2:00 2015 SK텔레콤 오픈 IR 4:00 2015 서울 디지털 포럼 5:00 SBS 뉴스파라이드 5: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12:05 사람, 산 1:05 축찬 처방전 100세 푸드 2:05 TV 주치의 2:20 OBS 애니월드 2:45 OBS 뉴스 3:05 꾸러기 TV 3:45 2015 동요 콘서트 4:45 OBS 뉴스 & 이슈 5:45 드라마 극장 (만이)	12:00 EBS 뉴스 10 연중기획-행복한 교육세상 1:10 슈퍼가장부와 위험한 동네 50 띠개비 루 2:15 정글북2 30 머털도사 3:30 뼈에 친구들 4:00 당동당 유치원 45 적과 땅 5:00 방귀대장 뽕뽕이 30 두다다콩 45 로보가 울리	
4	6:00 6시 내고향 6:55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 7:00 KBS 뉴스 7:30 한국의 밤상 8:25 일일 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6:00 KBS 글로벌 24 6:30 2TV 저녁생생정보 7:50 일일 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8:30 반려 동물 극장 단편 8:55 불우의 재발견	6:10 생방송 오늘 저녁 7:15 일일 연속극 (불굴의 처여자) 7:55 MBC 뉴스데스크 8:55 일일 특별기획 (딱 너 같은 말)	6:00 생방송 투데이 7:20 일일 드라마 (달려라 장미) 8:00 SBS 8 뉴스 8: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6:55 대자연의 신비 7:45 OBS 뉴스 M 8:25 오늘의 월드 뉴스 8:55 독특한 연예 뉴스	6:00 생방송 특! 특! 보니 7:00 슈퍼가장부와 위험한 동네 30 EBS 뉴스 50 정춘! 세계도전기 8:50 세계테마기행	
6	9:00 KBS 뉴스9 10:00 KBS 다크1 10:55 국민대합창 우리애 11:00 KBS 뉴스라인 11:40 KBS 특선 (일하는 당신 행복 하십니까) 12: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25 생활의 발견 2:15 다크공감 3:05 일약 토크 3:25 KBS 중계석	10:00 수목 드라마 (복면검사) 11:15 해피투게더 12:55 스포츠 하이라이트 1:20 걸어서 세계속으로	9:30 리얼스토리 논 10:40 수목 미니시리즈 (맨드롱 도웃) 11:15 경찰청 사람들 2015 12:25 MBC 뉴스24 12:45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1:00 MBC 네트워크 특선 (시대의 벽을 넘는 여성) 1:55 아시아 프리즘 마이 선샤인	10:00 드라마 스페셜 (냄새를 보는 소녀) 11:15 자기야-백년 손님 12:35 나이트 라인 1:05 2015 서울 디지털 포럼 하이라이드 2:1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9:45 와이드 ASIA 10:40 OBS 뉴스 뉴스라인 11:05 경찰 25시 12:05 꿈꾸는 U 1:05 Music & Movie 1:35 인생열전 (살 만나는 세상)		
9	6:00 6시 내고향 6:55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 7:00 KBS 뉴스 7:30 한국의 밤상 8:25 일일 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6:00 KBS 글로벌 24 6:30 2TV 저녁생생정보 7:50 일일 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8:30 반려 동물 극장 단편 8:55 불우의 재발견	6:10 생방송 오늘 저녁 7:15 일일 연속극 (불굴의 처여자) 7:55 MBC 뉴스데스크 8:55 일일 특별기획 (딱 너 같은 말)	6:00 생방송 투데이 7:20 일일 드라마 (달려라 장미) 8:00 SBS 8 뉴스 8: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6:55 대자연의 신비 7:45 OBS 뉴스 M 8:25 오늘의 월드 뉴스 8:55 독특한 연예 뉴스	6:00 생방송 특! 특! 보니 7:00 슈퍼가장부와 위험한 동네 30 EBS 뉴스 50 정춘! 세계도전기 8:50 세계테마기행	
8	9:00 KBS 뉴스9 10:00 KBS 다크1 10:55 국민대합창 우리애 11:00 KBS 뉴스라인 11:40 KBS 특선 (일하는 당신 행복 하십니까) 12: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25 생활의 발견 2:15 다크공감 3:05 일약 토크 3:25 KBS 중계석	10:00 수목 드라마 (복면검사) 11:15 해피투게더 12:55 스포츠 하이라이트 1:20 걸어서 세계속으로	9:30 리얼스토리 논 10:40 수목 미니시리즈 (맨드롱 도웃) 11:15 경찰청 사람들 2015 12:25 MBC 뉴스24 12:45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1:00 MBC 네트워크 특선 (시대의 벽을 넘는 여성) 1:55 아시아 프리즘 마이 선샤인	10:00 드라마 스페셜 (냄새를 보는 소녀) 11:15 자기야-백년 손님 12:35 나이트 라인 1:05 2015 서울 디지털 포럼 하이라이드 2:1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9:45 와이드 ASIA 10:40 OBS 뉴스 뉴스라인 11:05 경찰 25시 12:05 꿈꾸는 U 1:05 Music & Movie 1:35 인생열전 (살 만나는 세상)		

종합편성제일-케이브

채널	제일	케이브	
중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TBC 07:30 JTBC NEWS 아침 & 10:30 유자식상팔자 14:25 JTBC 뉴스 현장 17:00 보고합니다! 5시 정치부 회의 19:55 JTBC 뉴스룸 23:00 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조선 06:30 TV조선 뉴스 7 09:40 김광일의 신통방통 14:10 돌아온 저격사수 16:30 장성민의 시사토크 21:30 TV조선 뉴스쇼 '판' 23:00 내 몸 사용 설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A 09:00 신윤아기타 돌리구 소 10:20 시사 인사이드 15:00 직인직설 16:20 쾌도난마 21:30 채널A 종합뉴스 23:00 잘 살아보세
드라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드라마 08:40 척하지 않은 여자들 11:20 그래도 푸르른 날에 13:20 슈퍼맨이 돌아왔다 16:00 오늘부터 사랑해 18:40 가족을 지켜라 20:50 개그콘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드라마넷 05:00 백년의 유산 09:50 여자를 울려 12:30 이브의 사랑 16:30 불굴의 처여자 19:00 라디오스타 20:20 진짜 사나이 시즌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플러스 08:20 풍문으로 들었소 11:10 황홀한 이웃 14:20 넘사벽 보는 소녀 17:00 불타는 청춘 18:30 아빠를 부탁해 21:20 자기야 백년손님
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CN 10:00 병맛하는 칼날 12:20 실종 노와르 M 13:50 쓰리데이즈 투 킬 16:20 이웃사람 18:40 지.아이. 조-전쟁의 서막 21:00 도둑놈, 나쁜놈, 이상한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널CGV 08:30 음치클리닉 11:00 Mr. 스타벅 13:50 쓰리데이즈 투 킬 15:30 택시! 택시! 17:30 페이스 메이커 21:00 도둑놈, 나쁜놈, 이상한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크린 09:00 왕좌의 게임 시즌5 11:00 적인결: 축전무후의 비밀 13:00 황야의 7인2 15:00 오션스 트웰브 17:30 리덕 21:00 인간중독
엔터테인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net 08:00 M morning 11:20 Mnet Music Twit 16:00 Daily Music Talk 18:00 M COUNTDOWN 21:00 Live on M 23:00 더 러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미디TV 08:50 정글의 법칙 in 솔로몬 11:30 무한도전 14:10 Daily K-pop 5 16:35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19:35 코미디 빅리그 20:55 맛있는 녀석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N 09:40 울지 않는 새 12:00 집밥 백선생 15:10 고교10대천왕 18:50 오늘 뭐 먹지? 21:40 헌신대합 3 23:00 문체적 남자
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N 스포츠 10:40 지상 최고의 격투쇼 12:50 우리동네 예체능 14:10 개그콘서트 18:20 2015 KBO 리그 〈한화:SK, 문학〉 22:00 I LOVE 베이스볼 시즌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스포츠 플러스 08:00 2015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vs 피츠버그〉 18:00 베이스볼 NOW 18:30 2015 KBO 리그 〈삼성 vs 두산, 잠실〉 22:00 베이스볼 투아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BS 스포츠 07:00 14-15 EPL 하이라이트 〈아스날:선덜랜드〉 16:00 야구명백 18:20 2015 KBO리그 〈LG:넥센, 목동〉 22:00 2015 베이스볼 S
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ws Y 08:00 뉴스 라운드 10:35 맹한형의 시사토크 12:40 뉴스현장 16:45 뉴스워치 20:50 뉴스 Review 22:50 투나잇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TV 07:50 이슈 오늘 11:58 뉴스N이슈 13:58 호준석의 뉴스 인 15:58 뉴스Q 17:58 뉴스 통 21:58 뉴스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TN 06:40 굿모닝마켓워치 11:00 이슈&현장 13:00 오후의 투자전략 15:40 부동산 가이드 18:00 MTN 투데이 21:30 전설의 고수비법

오늘의 운세 5월 21일(음 4월 4일)

시간	운세	운세	운세	운세	운세
36년생	능력을 발휘하여 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생겼다.	39년생	사업왕성이나 가족 및 연인 문제로 손실.	42년생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에게서 좋은 소식을 얻었다.
48년생	가족이나 친척에 경사가 생겼다.	51년생	미루어왔던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할 때.	54년생	변수가 많은 하루이니 한시도 긴장 늦춰서는 안 된다.
60년생	결정은 충분히 상상을 살피고 신중히 할 것.	63년생	직장이나 사업에 변화가 있었다.	66년생	하기 싫은 일이 생겼다.
72년생	새로운 일 계획하기에 제격인 날.	75년생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78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84년생	친구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 것.	87년생	남 이야기하면 난처한 일 발생하니 입조심.	90년생	욕심내면 오히려 실패한다.
37년생	무엇이든 과감해도 좋다.	40년생	기대 이상이 성과로 즐거운 하루.	43년생	건강을 위해 과음, 과식을 피해야 한다.
49년생	오늘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선 안 된다.	52년생	너무 건강을 과신하지 마라.	55년생	뒷사람과 뜻이 맞지 않아 난감하다.
61년생	좋은 분위기가 갖추어졌다.	64년생	매사 능률 오르고,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었다.	67년생	하루 중일 좋은 말만 듣는다.
73년생	수입이나 이익이 발생할 듯.	76년생	유리하게 보여도 판단은 유보할 것.	79년생	잘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용서하는 것이 좋겠다.
85년생	모든 판단은 신중할 것.	88년생	머리 아팠던 일들이 서서히 해결되었다.	91년생	점진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라.
38년생	말실수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 입조심.	41년생	어느 때보다 인내가 필요하다.	44년생	적극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듯.
50년생	배우자와 외출로 기분전환하면 관계에 도움 될 듯.	53년생	그림 활동에서 마음에 맞는 벗을 만날 듯.	56년생	대접을 받을 일이 생기기 시작할 듯.
62년생	분위기 파악을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65년생	흥한 날이니 모든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68년생	갈만 보고 판단하지 말 것.
74년생	문서거리에 유리하다.	77년생	능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생길 듯.	80년생	마음을 달래줄 친구를 만나겠다.
86년생	배우자와 갈등이 생겼다.	89년생	심리적 갈등이 있으나 오후에 차차 사라지겠다.	92년생	젊은 열기로 저지른 일로 곤란한 일 겪게 된다.

도서관출판

유림

HIGH QUALITY COLOR PRESS & PUBLISHING

인쇄전문 교육관계기관, 관공서, 기업체, 각종 판촉물, 상패, 현판판 제작

대표서창옥 인천시 남구 송의동 129-62 TEL 032)881-4380 FAX:032)881-4379

소중한 이에게 마음 전하는 '짧은 편지'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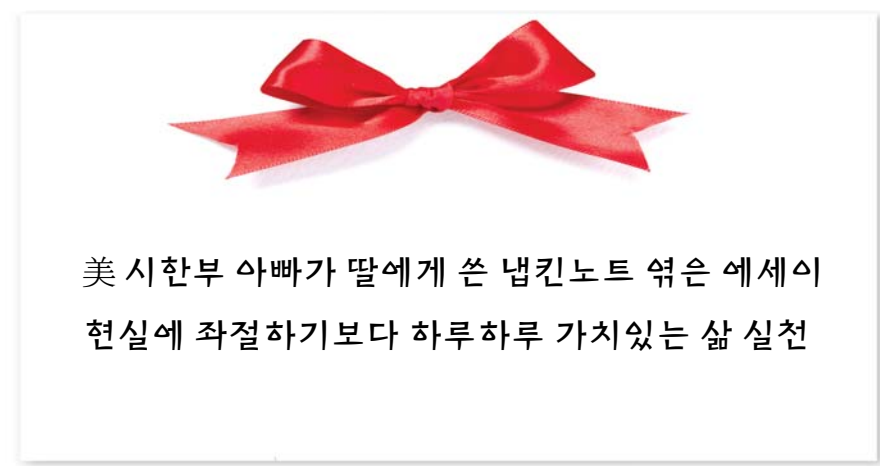
Book 프리뷰
넵킨 노트

가스 캘러헌 / 위즈덤하우스 / 256쪽 / 1만3천 원



“‘사랑해’라고 쓰는데 5초면 충분하다.” 이 책은 시한부 환자인 가스 캘러헌이 딸 엠마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일 도시락에 넵킨(napkin) 노트를 써주겠다는 약속을 지키

킨 감동 실화를 담은 에세이다. 2011년 평범한 미국인인 가스 캘러헌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다. 당시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며 “당신 딸 엠마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모습을 볼 가능성은 8%입니다”라고 전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캘러헌은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랑하는 이의 소중함, 오늘 나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인생, 이루고 싶은 꿈과 소망을 향한 열정 등의 의미와 가치를 잊은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바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무엇보다도 그를 가장 절망시킨 것은 딸 엠마가 고등



美 시한부 아바가 딸에게 쓴 넵킨노트 엮은 에세이
현실에 좌절하기보다 하루하루 가치있는 삶 실천

학교를 졸업하는 모습을 볼 가능성이 8%밖에 없다는 의사의 말 때문이었다. 그는 이런 심각한 현실에 좌절하기보다 하루하루를 선물이라 생각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었다. 결국 그는 딸 엠마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일 도시락에 넵킨 노트를 써주겠다고 자신과 약속했고, 826장의 넵킨 노트를 완성하며 그 약속을 지켜냈다. 입 한번 속 닦고 나면 휴지통에 버려지는 것이 일회용 넵킨의 운명이지만, 그는 넵킨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여 삶의 소중함과 사랑을 깨달았다.

지금도 캘러헌은 딸에게 인생의 문장을 선물하기 위해 넵킨과 펜을 든다. 언제 갑자기 내일과 마주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신장암 진단 이후 지금까지 4번의 암 수술을 견디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캘러헌이 넵킨에 써 딸 엠마에게 전한 메시지 중 일부다. “아빠는 반드시 이겨낼거야, 매일 아침 네게 편지를 써야 하나.” “사랑하는 엠마, 미소는 도저히 웃을 수 없을 때 더 빛나는 법이란다.” “사랑하는 엠마에게, 경기에 나가지 않

으면 이길 수가 없단다.” “이번 주는 정말 힘든 한 주였어, 하지만 우린 지지 않았어, 웃음을 잃지 않았으니까.” “언젠가 정글짐에 올라갔을 때 내 친구가 ‘내가 구해줄게!’라고 외치자 ‘나는 내가 구할 거야’라고 말하네 네 모습을 기억하니, 그런 사람이 되어주렴, 너답게 용감하게, 아빠가.” 이렇게 매일매일 펜으로 메모를 적었다. 이 단순하고도 사소한 행위로 인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항상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 그 삶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사연이 SNS와 미국 NBC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후 그가 넵킨에 쓴 내용과 가슴 따뜻한 실화를 담은 책 ‘넵킨 노트’가 발간되기까지 했다. 그가 이 책을 통해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라고 말한다.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도시락을 싸고, 노트를 적고, 마음을 나누자. 인생에 중요한 것은 단지 그뿐이다.” 이 책을 다 읽은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 할지도 모르겠다. “나도 오늘부터 넵킨 노트 한 장씩 써볼까?” 김경일 기자 kik@kohoiboo.co.kr

은은한 매력 갖춘 詩의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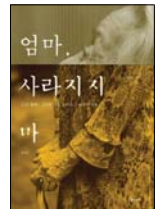


바다의 비망록
김원욱 / 황금알 / 128쪽 / 9천 원

인천시문화원협회장과 인천시연수문화원장을 역임한 김원욱 시인이 최근 시집을 펴냈다.

지난 2월 출간된 에세이집 『먼 데서 오는 여인』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시집을 낼 정도로 끊임없는 집필 열정을 보여며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구성돼 ‘겨울 느티나무’, ‘그녀의 세월은 그렇게 멈추었다’, ‘소래포구’, ‘어떤 난중일기’ 등 다양한 주제의 시편들을 수록하고 있다. 『문학청춘』 주간인 김영탁 시인은 이번 김원욱 시인의 시집 『바다의 비망록』에 대해 “기성적인 시를 넘어 검검이 밑그림이 숨어있는 수채화처럼, 마음의 닷을 내릴 때만 보이는 은은한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평했다.

잇고 살았던 엄마의 참모습



엄마, 사라지지 마
한선희 / 북노마드 / 288쪽 / 1만5800원

90대 엄마의 모습을 70대 사진작가 딸이 사진 찍고 감회를 쓴 포토에세이로 25일 출간될 예정이다. 이 책은 사진작가 한선희가 2012년 가을부터 2015년 봄까지 노모의 모습을 촬영한 흑백사진과 짙막한 글로 이루어졌다. 『엄마, 사라지지 마』는 꽃처럼 아름다웠던 한 여인의 허물어진 노년 풍경과 인간의 나이 둘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작가는 “우리 엄마에게는 이제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을까”라는 절박함의 고통을 잡고 카메라를 통해 엄마를 클로즈업하고 상처와 고통에 다가선다. 저자는 뒤늦게 엄마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후 기도하는 심정으로 되된다. “엄마, 사라지지 마.” 김경일 기자 kik@kohoiboo.co.kr

이주의 베스트셀러

제공: 교보문고 인천점 032-455-1000

1위	미움받을 용기(자기계발) 저자 기시미 이치로. 인플루엔셜. 336쪽 1만4천900원.	6위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글쓰기) 저자 유시민. 생각의결. 292쪽. 1만5천 원.
2위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인문학) 저자 채사장. 한빛비즈. 376쪽. 1만2천 원.	7위	허조변드 시크릿(영미소설) 저자 리안 모리아티. 마시멜로. 536쪽. 1만4천800원.
3위	담론(인문학) 저자 신영복. 들레개. 428쪽. 1만8천 원.	8위	허버드 새벽 4시 반(자기계발) 저자 웨이슈잉. 리이스메이커. 300쪽 1만4천 원.
4위	7번 읽기 공부법(자기계발) 저자 어머치 마유. 위즈덤하우스. 228쪽. 1만1천900원.	9위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현실머(인문학) 저자 채사장. 한빛비즈. 376쪽. 1만2천 원.
5위	원피스 77(만화) 저자 에이치로 오다. 대원씨아이. 232쪽. 5천 원.	10위	나미야 집합점의 기적(일본소설) 저자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456쪽. 1만4천800원.

말리의 인생 뒤흔든 교향곡 제5번

‘자연과 삶...’ 두번째 시리즈
부천필, 내일 제1·5·6번 연주
박영민 상임지휘자 지휘봉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2일 ‘말리, 자연과 삶 그리고 죽음’ 시리즈로 관객과 만난다. 부천시민회관에서 펼쳐질 말리의 교향곡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생에 대한 심오한 고찰이 전 교향곡을 관통해 하나의 우주가 담겨 있는 대작이다. 올 한 해 부천필은 이처럼 개성적 단면이 펼쳐지는 교향곡 제1번, 제5번, 제6번을 재현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말리, 자연과 삶 그리고 죽음’ 시리즈의 두 번째 연주회다. 박영민 상임지휘자가 직접 지휘봉을 잡는다. 언제나 신선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오케스트라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은 박영민 지휘자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특유의 대담하고 명징한 해석으로 말리, 그 이상의 말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주 프로그램은 말리의 작품상상 새

로운 전환점이 된 ‘교향곡 제5번’이다. 말리의 창작력이 황금기에 올랐던 시절에 작곡된 이 곡은 특정한 메시지를 담기보다는 청중의 음악 그 자체를 감상하도록 이끈다. 이전의 교향곡에서 선보이지 않았던 세련된 작곡 기법이 눈에 돋보이기도 하는 이 작품은 삶의 기쁨과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인간 내면을 가득 담고 있기도 하다. 부천필의 말리 프리미엄을 직접 경험하는 공연은 전석 1만 원이다. 초등학교 이상 입장 가능하다. 예매는 부천시립예술단 홈페이지(www.bucheonphil.org)를 통해 할 수 있다. 문의: 부천시립예술단 사무국 ☎032-625-8330~1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ohoiboo.co.kr



성남문화재단이 성남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아 예술가·시민과 함께 ‘성남 느낌지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한다.

각가지 사연 찾아 성남 거리 곳곳 발도장 청소년~성인 참가자 29명 프로그램·창작워크숍 진행

성남아트센터 개관 10주년 ‘느낌지도 만들기’ 프로젝트

성남문화재단이 성남아트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아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예술창작 프로젝트 ‘성남 느낌지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성남 느낌지도 만들기’는 수정·중원구를 중심으로 분시가지와 신시가지인 분당, 판교 사이의 환경이 크게 다른 점에 착안, 시민·예술가가 지역의 역사와 사연을 발굴해 감성을 불어넣는 프로젝트다. 재단은 지난달 성남 거리에 다양한 사연

을 가진 시민들을 모집, 청소년 15명과 성인 14명을 참가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오는 8월까지 ‘예술 체험 프로그램’과 ‘나의 거리 창작 워크숍’, ‘통합공연’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자와 그 가족, 친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나의 거리 창작 워크숍’은 각기 다른 주제와 장르로 진행되는 5주간의 오픈 워크숍이다. 나의 거리 창작 워크숍은 다음 달 13일

부터 7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진행된다. 작품은 성남아트센터에서의 전시와 마지막 공연에 사용된다. 지난 16일 예술 체험 프로그램의 첫 모임을 가진 참가자들은 자신의 색깔 정하기, 동·식물로 비유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앞으로 ‘오감으로 만나요’, ‘우리가 사는 곳’, ‘나의 거리 이야기’, ‘우리 동네 거리 이야기’를 주제로 예술 활동가와 함께 저마다의 성남 거리 이야기를 다

양한 예술로 창작한다. 또 15주 동안의 프로그램과 워크숍 과정을 공연으로 담아 오는 8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선보인다. 재단 관계자는 “예술과 삶,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창작활동을 하는 성남 느낌지도 만들기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시민예술 창작 모델을 발굴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성남이 시민의 추억이 공존하는 예술적 터전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ohoiboo.co.kr

장욱진 미술관 1주년 맞아 새단장

관람객 위해 조각공원 통합 운영 권율장군 묘역에 산책로 개설도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이 근현대 미술사의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미술계의 거장 장욱진 화백 미술관 개관 1주년을 맞아 새롭게 탈바꿈한다. <사진>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은 장욱진 화백의 작품을 전시해 그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장흥관광지를 문화예술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개명산 아래 6천506㎡ 부지 내에 1천 851㎡ 규모의 건축물을 지어 지난해 4월 28일 문을 열었다. 미술관은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영국 BBC로부터 ‘2014년 위대한 세계 8대 뉴미디어’로 선정되는가 하면 건축물 또한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4년 김수근 건축상’을 수상하고

대한건축가협회가 선정하는 ‘2014년 올해의 건축베스트 7’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여기에 개관 첫 해의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개월간 3만2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주시는 앞으로 3~4년이 미술관의 품격과 수준이 정해지는 기간이라고 보고 현재와 같이 국내 미술계와 외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시기에 미술관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양주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9천㎡의 조각공원을 미술관으로 통합하고 매표소도 조각공원 매표소로 이동 배치해 미술관에 입장한 관람객이 조각공원 전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율장군 묘역 2만3천㎡를 같은 권역으로 통합해 산책로를 개설하고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해 주말이면 주차 문제로 관람객이 상당한 불편을 겪는 것을 감안해 새롭게 단장하는 미술관의 주차장은 장흥관광지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고, 미술관과 조각공원 사이를 잇는 구름다리도 개방해 관람객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장흥관광지 통합할인제도 참여, 시립미술장작스튜디오 연계, 주민들의 미술관련 활동 지원 등 미술관의 새로운 탈바꿈으로 인해 그 품격이 한층 높아지고 장흥관광지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주=전정훈 기자 jhun@kohoiboo.co.kr

Culture 브리핑

산사음악회 아홉번째 공연 30일 관악사 연주암에서 열려

올해로 9회째인 산사음악회가 오는 30일 낮 12시 관악산 연주암에서 무료로 열린다. 이번 산사음악회에는 쉼표처럼 맑은 목소리로 트로트 음악을 대표하는 김용임과 ‘부초같은 인생’을 작곡한 김성길 사단의 가수 유희가 나와 트로트 음악의 진수를 선사할 예정이다. 경기민요무형문화재 57호 이수자이자

웃음치료사인 가수 단향과 노래하는 스님 이천 해룡사의 탄명 스님도 출연한다. 이 외에도 과천시립교향악단 금관 5중 주단과 연주암합창단이 출연해 클래식과 합창 등 편안하고 감미로운 화음으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ohoiboo.co.kr

가천대 출신 플루티스트 송연화, 뉴욕 카네기홀서 독주회

가천대학교는 학교 출신 플루티스트 송연화(35·여)씨가 미국 NYCA(New York Concert Artists)협회의 2015~2016 때 열리는 신인 음악가 시리즈 관악기 대표 주자로 선정돼 오는 29일 뉴욕 카네기 웨일홀에서 독주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송 씨는 또 내년 4월 22일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에서 독주회를 가져 클래식음악계 꿈의 무대인 카네기홀과 베를린필하모닉홀에서 모두 연주하게 됐다. 뉴욕 카네기 웨일홀 독주회에서는 가천대 배속수(작곡전공)교수의 플루트 독주를 위한 ‘PAN II’ 초연 이외에 C.P.E. 바



흐, 클로드 드뷔시 등의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송 플루티스트는 서울 심포니 쿨루르 대상, 한국 플루트협회 쿨루르 1위, 아스트라 영 아티스트 쿨루르 1위, 미국 피츠버그 쿨루르 1위 등을 수상했으며 서울시립교향악단, KBS국악관현악단과의 협연 무대 등을 통해 국내외 관객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받아왔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ohoiboo.co.kr

포토뉴스



광주 소재 곤지정사, 광주시에 불우이웃돕기 쌀 기탁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곤지정사(주지스님 만성) 신자 모임 '함께 사는 모임'은 석가탄신일을 맞아 부처님의 나눔과 자비 실천의 일환으로 광주시에 불우이웃돕기 쌀 10kg 120포(3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 모임은 1998년부터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신도들이 십시일반 쌀을 모아 기탁하고 있으며, 이날 전달된 쌀은 곤지암읍을 비롯해 3개 기관에 나눠져 불우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경원 희망나눔교장은 "해마다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 온 후원자 여러분의 온정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전달된 쌀 한포 한포마다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hihoilbo.co.kr



경기경총 조용이 회장, 화성 폴리텍대학서 강연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는 20일 학내 강당에서 경기경총회장 조용이 회장을 초청해 '인생의 목표를 정하자'라는 주제로 특별강의를 실시했다.

특강은 미래신성장동력학과로 선정된 스마트전기와 재학생 등 360여 명의 능사주 주간 1년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명예교수로 위촉된 조 회장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열정적인 강의를 진행해 학생들의 학구열에 불을 지폈다.

화성=조홍복 기자 hbj@kh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hihoilbo.co.kr



노희순 양주남문중 교장,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 영예

양주 남문중학교와 한국외식과학고 교장을 겸임하고 있는 노희순 교장(양주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015년 제4회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 20일 서울 양재동 The-K호텔서 울에서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노희순 교장은 평소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꿈꾸며 헌신해 왔으며, 투철한 국가관과 교육관을 갖고 창의·혁신적인 학교로 발전시켜왔다.

이번 대한민국 스승상은 창의·인성교육과 경기도 5대 혁신교육을 위해 힘쓴 점, 학교·가정·지역사회 및 산·관·학의 연계를 통한 특성학교 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한 점 등의 공적이 인정돼 수여받게 됐다. 양주=전정훈 기자 jihun@khihoilbo.co.kr



농협상호금융MBA 교육생 극기훈련·현장체험 펼쳐

농협 안성교육원(원장 김육근)에서 교육 중인 '농협상호금융 MBA' 교육생들이 제주지역 농촌현장을 찾아 극기훈련 및 현장체험을 실시했다.

교육생들은 19일 안성을 출발해 4박 5일간 제주지역 농협사업장 및 우수경영체, 농업 선도 농가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안성=윤영준 기자 yjy@khihoilbo.co.kr

행복한 부부, 건강한 가정 꽃피우는 씨앗

군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모범 부부 선정 표창 사랑의 편지·4행시 써낸 6쌍의 부부도 수상 영광

군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5월 가정의 달 및 5월 21일 부부의 날을 기념해 지난 19일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2015년 부부의 날 기념행사-부부 행복한 동행'을 개최했다.

기념식, 사랑의 편지 및 부부 십계명 낭독, 문화공연, 특별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윤주 군포시장과 지역 다문화 가정, 일반 가정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또 기념식에서는 모범 부부에 대한 표창과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공모한 부부의 날 기념 부부 사랑의 편지쓰기 및 4행시 부분 우수작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돼 6쌍의 부부가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한편 이번 행사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지역사회를 지향하는 부부 중심·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군포시청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의 하나다.

가정의 달을 맞아 군포시와 군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포=박현규 기자 wkp@khihoilbo.co.kr



조금만 늦었어도... '잘못된 선택' 경찰이 막아

화성동부경찰서 정남파출소, 자살 시도 30대 여성 구조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정남파출소 경찰관들이 자살 시도자의 귀중한 생명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8일 충남 홍성경찰서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고 연락이 두절된 김모(38·여)씨를 찾기 위해 정남파출소에 공조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긴급한 사안임을 직감한 정남파출소 경찰관들은 위치를 추적해 기지국 주변을 수색했지만 발견할 수 없었고, 다음 날인 19일 오전 9시 30분경부터 시작된 관내 모텔 20여 곳을 탐문 중 모텔 종업원에 가서 김 씨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신속히 출동,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의식이 희미한 김 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해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

김 씨를 처음 발견한 윤미정 순경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배 전 단지를 들고 모텔 곳곳을 돌아 다녔는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 경찰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며 부끄러워했다.

박명수 서장은 "한순간만 늦었더라도 안타까운 생명을 잃을 뻔했



다"면서 "위급한 상황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며 "주민 여러분들께서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한 경우 언제든지 경찰을 찾아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hihoilbo.co.kr



하남시자원봉사센터-기업은행 사랑의 밥차 운영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는 IBK기업은행과 함께 무료 급식차량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운영한다.

20일 센터에 따르면 밥차 운영에 앞서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관단체·자원봉사단체 대표 및 회원, 사회복지담당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사랑의 밥차는 3.5t 트럭 내부에 취사시설과 냉장·급수시설 등을 갖춰 1회 최대 300인분의 배식이 가능하도록 특수 제작됐다. IBK기업은행은 차량 및 급식비·운영비 등 총 1억 4천600여만 원을 후원했으며, 운영은 센터가 맡게 된다.

센터는 시청 앞 근린공원에서 다음 달 18일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같은 달 30일 밥차 전달식을 연 이후 9~11월 주 1회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hihoilbo.co.kr



성남 수내파출소 경찰들 유치원 깜짝 방문 이벤트

유치원 어린이들의 편지를 받은 경찰관들이 그 화답으로 유치원을 깜짝 방문했다.

지난 15일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하나유치원에서 경찰관이 꿈이라는 3명의 어린이(양재호·남예슬·윤성현)가 수내파출소 경찰관에게 빼돌려온 글씨로 "도둑을 잡아 감사하다.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감사 편지를 보내왔다. 노만일 수내파출소장은 "어린이들의 꿈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것 또한 경찰관의 임무"라며 "앞으로도 관내 보육시설을 수시로 방문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hihoilbo.co.kr

곤충자원 산업화 현장 방문 창업아이디어 절로 샘솟네

양주농기센터 교육생 오산에코리움 등 견학

양주시농업기술센터는 20일 곤충창업사관학교 교육생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에코리움, 경기도물항기술목원, 구리곤충생태관 등지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유용 곤충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곤충산업화의 실재를 파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생들은 곤충 견본보, 디오라마, 소형곤충 식물표본 등이 전시된 경기도곤충산업전 기획전시관 및 구리곤충생태관을 견학했다. 여기서 이들은 신성장 동력원인 곤충산업이 식·약용, 애완학습 곤충용 등으로 발전하는 사례를 접했다. 특히 실생활 재료를 이용해 사슴벌레, 잡자리, 장수풍뎅이 등



자원의 곤충들을 만드는 문태규 강사의 체험교육은 참가한 교육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교육생들에게 다양한 소득원을 창출하는 곤충 분야를 접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교육 수요 후 본격적인 창업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ihun@khihoilbo.co.kr



용인동부서명시대, 캠퍼스폴리스발대식

용인동부경찰서는 20일 명지대학교 창조예술관에서 캠퍼스 내 범죄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자율적 범죄예방 조직인 '캠퍼스폴리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또 용인동부서와 명지대는 안전하고 차분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학 간 유기적인 치안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캠퍼스폴리스는 재학생을 중심으로 근무조를 편성해 주로 심야시간에 교내 안전·질서유지와 도난·화재 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을 실시하고, 사건 발생 시 관할 지구대와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락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용인=우승호 기자 bison88@khihoilbo.co.kr



광주시제9회중소기업 제품박람회 성료

광주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곤지암도자공원에서 진행된 '제9회 광주 중소기업 제품박람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관내 94개 기업이 참여한 박람회는 12만 명의 방문객과 4억4천만 원의 제품 판매, 11억 원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단위 관람객을 겨냥한 어린이날 3·2·1 타악 공연을 비롯해 경품 및 경매 행사,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도 진행돼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행사장 내에 일자리 상담센터를 마련해 ▶구직상담 169건 ▶구직등록 69명 ▶구인등록 12개 업체 등 일자리 창출 시너지 효과를 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hihoilbo.co.kr



경기경찰 외사협력자문위원회 위촉식·간담회 진행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제8회 세계인의 날인 20일 지방청 5층 강당에서 김종양 청장과 지휘부, 위촉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사협력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외사협력자문위원들에 대한 위촉식 수여에 이어 경기경찰 홍보영상 시청, 외사협력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심연규 기자 sims@khihoilbo.co.kr



S-OIL 등 임직원 사회공헌 눈길 노인복지관에 후원금 전달·봉사

S-OIL이 계열 주유소와 공동으로 인천시 남동구노인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S-OIL 임직원과 ㈜유카스에너지 임직원들은 20일 'S-OIL 주유소 나눔 N 캠페인' 기부금을 복지관에 전달한 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S-OIL 류효식 상무는 "주유소 나눔 N 캠페인은 영업 현장의 직원들과 주유소 운영인들이 'S-OIL 주유소 사회봉사단'을 이뤄 각 지역의 복지시설에 특화된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S-OIL의 대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며 "임직원들과 주유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나눔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김용배 남동구노인복지관장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나눔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런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재균 기자 ajk@khihoilbo.co.kr



인천 갈산중 늘품누리 효봉사단 인근 어르신 찾아 음악선물 선사

인천 갈산중학교는 지난 19일 오후 '늘품누리 효봉사단' 학생들과 음악에 재능이 있는 '갈산엔젤스' 단원들이 모여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노인정을 방문해 '갈산 효음악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갈산 효음악회는 이웃 노인들을 찾아뵙고 학생들의 악기와 노래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배려의 의미를 되새기는 봉사활동이다.

학생들의 연주와 노래는 노인들의 귀와 마음에 아름다운 선율이 돼 울려 퍼졌다.

또한 늘품누리 효봉사단 학생들은 노인들을 위해 비즈 팔찌를 만들어 평상시에도 학생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선물했다.

갈산중 관계자는 "앞으로도 갈산중학교 늘품누리 효봉사단과 갈산엔젤스는 인근 어르신들을 꾸준히 찾아 인사드리고 여가활동에 즐거움을 드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재성 기자 jskim@khihoilbo.co.kr



장애의 벽 허문 소통 한마당

인천시 근로장애인 체육대회 800여 명 참여한 가운데 성료 한국지엠 등 잇따른 후원에 중단위기 넘겨 기사회생 '뭉클'

20일 오전 10시 인천시 연수구 선학체육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박웃음을 터트리며 속속 모여들었다. 모두 간편한 활동복 차림이다.

이날은 인천지역 내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과 직원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다. 지역에 있는 26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총 800여 명이 참석한 연중 가장 큰 행사인 체육대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인천시 협회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은 음악에 맞춰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본격적인 경기를 시작했다. 피구, 족구부터 홀라후프 경연, 하늘높이 솟 등 다양한 경기가 열렸다.

특히 체육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팀별 응원전에서는 장애인들이 이날을 위해 갈고 닦은 솜씨를 마음껏 뽐냈다.

응원전에 참여한 이색적인 팀 이름 역시 눈길을 끌었다. 총 4개로 구성된 팀(쉐보레·스파크·카마로·아베오)은 인천시민이라면 모두 알 만한 이름이다. 인천에 본사를 둔 글로벌 자동차 제조기업인 한국지엠의 대표 차종들이 다.

이러한 팀명을 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인천시가 재정난으로 체육대회 사업비 지원을 중단해 대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급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후원하면서 겨우 행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같은 팀명을 정했다.

가장 큰 행사다 보니 각계각층에서 돕고 나섰다. 한국지엠 외에도 나누리병원, DS H&B, 교육그룹 더필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등이 그들이다.

체육행사에는 김동철 인천시장에이직업재활시설협회장과 한창원 기호일보 대표이사 겸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한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등 내빈 30여 명이 참석했다.

안재균 기자 ajk@khihoilbo.co.kr

재정 정상화로 부자도시 인천될 것

부평옴포럼, 조용균 시 정무특보 초청 특별강연

인천 부평옴포럼은 지난 19일 오후 7시 한길안과병원 10층 강당에서 인천시 정무특보 조용균 변호사를 초청,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열었다.

부평옴포럼은 강연에 앞서 밝은빛한의원, 인천마디병원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 회원 가족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인천마디병원과 밝은빛한의원의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기로 합의했다.

단상에 오른 조용균 특보는 시민과의 공약인 교통, 경제, 교육, 안전, 복지, 행정 등 부문별 공약을 수치별로 자세히 설명한 후, 공약 이행 뒤 변화된 인천의 모습을 그려 줬다.

이상적인 학부모 역할 배운 시간

서구, 해원초교서 정초신 감독 자녀 교육법 강의

인천시 서구는 20일 인천해원초등학교 강당에서 학부모 인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우리 아이 영화 속 주인공 만들기'라는 주제로 정초신 영화감독의 자녀 교육법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인천해원초를 시작으로 총 6개 지역 내 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학부모 인성교육을 통해 자녀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인식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는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그는 인천 가치의 재창조로 경제가 살아나는 인천은 재정 정상화를 통해 부채 도시에서 부자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김중국 기자 kjk@khihoilbo.co.kr



있으며, 이번 학부모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가정과 학교의 연계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식 기자 dshan@khihoilbo.co.kr

알림 ▶인천시 2015 세계교육포럼 폐회식=21일(목) 오후 5시 15분 송도컨벤시아. ▶의왕시 시립왕곡어린이집 개원식=21일(목) 오전 10시 30분 시립어린이집. ▶시흥시 부부의날 기념행사=21일(목) 오후 2시 여성비전센터.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21일(목) 오후 7시 30분 수리홀.

결론 ▶강명철(강상석 인천시 행정관리국장·권후자 인천시 여성정책팀장 장남)군·서주리(서정성·홍은채 씨 장녀)양=23일(토) 낮 12시 송도센트럴파크호텔 7층 워터홀. ☎032-310-5000

▶이근영(이석봉·최귀순 씨 장남)군·손지아(손윤선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최수란 씨 장녀)양=23일(토) 낮 12시 한국순교성인성당(송도성당). ☎032-858-2226

포토뉴스

추태업 자유총연맹 인천시 분회장협의회장 취임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 분회장협의회장은 20일 남구 수봉공원 인천자유회관 강당에서 간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추태업 회장 취임식 및 김송준 회장 이임식을 가졌다.

추태업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2만 4천여 일반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된 조직체계를 구축해 외형적으로 화려한 것보다는 실질적인 활동력과 추진력을 갖춘 조직으로 기반을 굳혀 나가는 한편, 작은 것부터 봉사를 실천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연맹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분회장협의회는 자유총연맹 인천시부회장 이정희 산하 조직으로 137개 읍·면·동 분회의 원활한 업무 협의와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자율적 협조체제로 구성돼 있으며, 호국안보 및 통일 준비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최윤희 기자 cyt@khihoilbo.co.kr



직장새마을운동인천협, 연수 장애인협에 세계 기탁

직장새마을운동 인천시협의회는 최근 연수 연수1동에 소재한 지체장애인협회 연수구지회를 방문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세탁용 가루세제 4.5kg들이 200개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나눔문화 확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6월에도 소외계층을 찾아가 양·한방 치료, 시력 측정, 자동차 정비 서비스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중국 기자 kjk@khihoilbo.co.kr



사실련 인천시지부, 상반기 수련회·단합대회 가져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인천시지부는 지난 19일 가평군 철수생각에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수련회 및 단합대회를 가졌다.

공정적이고 진취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기초단체 확립운동 전개, 각 구 지회별 장기자랑 및 상반기 실적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정철용 인천사실련 회장은 "임원들의 단합된 모습으로 새 출발하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윤희 기자 cyt@khihoilbo.co.kr

색다른 Design 디자인

기획에서 편집·인쇄까지 **one-stop!**

최첨단 전산시스템과 세련된 기획력을 갖춘 전문인력들이 최상의 이미지 연출을 통한 최고의 품질로 만족을 드립니다.

- 학교신문
- 연구논문
- 시·군 및 향토소식지
- 교지
- 회보/사보
- 각종홍보인쇄물
- 학보
- 관광화보
- 운전/음식인쇄

— 출판인쇄물기회 · 제작 토털시스템 —

기호일보 출판사업부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343-1

전화 (032)761-00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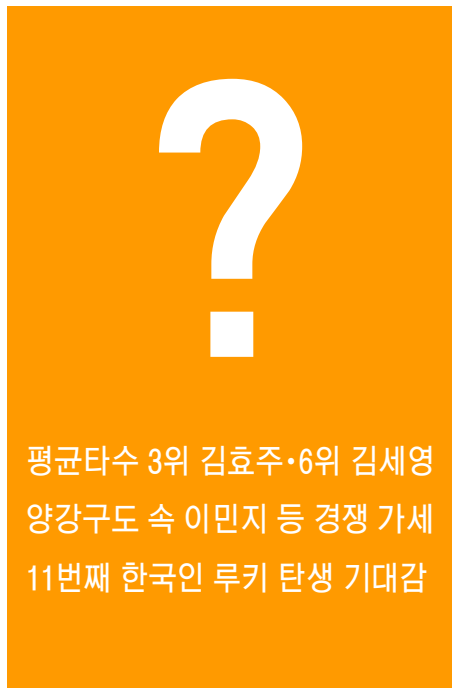
LPGA 신인왕 찾아라... 코드명 '코리안'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신인 선수에게 주는 '올해의 신인상' (이하 신인왕) 경쟁이 '코리안'끼리 각축전이 됐다. LPGA 투어 안팎에서는 올해 '코리안 신인왕' 탄생을 기정사실로 전망한다. 누가 되든 올해 신인왕은 '코리안'이라는 예기가 파다하다.

20일 현재 LPGA 투어 신인왕 레이스 상위권은 '코리안' 일색이다. 시즌 2승을 올린 김세영(22·미래에셋·오른쪽)이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1승을 따낸 김효주(20·롯데·왼쪽)가 2위, 그리고 장하나(23·비씨카드)와 호주교포 이민지(19·하나금융)가 3, 4위에 포진했다. 또 최근 킹스밀 챔피언십에서 우승 경쟁 끝에 3위를 차지한 미국교포 엘리슨 리(19)가 신인왕 레이스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신인왕 레이스 구도는 아직은 김세영과 김효주의 양강 구도이다. 김세영과 김효주는 시즌 초반부터 신인 돌풍을 일으키며 신인왕 레이스를 주도해 왔다. 일찌감치 우승을 신고해 '특급 신인'의 위상을 굳혔다. 둘은 특히 상급랭킹과 평균타수 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상위권에 올라 투어 정상급 선수로 대접받는다. 선수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평균타수에서 김효주가 3위(69.64타), 김세영은 6위(70.40타)에 이름을 올린 만큼 둘의 기량은 신인 가운데 단연 돋보인다.

하지만 아마추어 세계랭킹 1위를 오래 지킨 이민지의 저력이 살아나면서 김세영



평균타수 3위 김효주·6위 김세영
양강구도 속 이민지 등 경쟁 가세
11번째 한국인 루키 탄생 기대감

김효주의 양강 구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이민지는 시즌 초반에 3차례나 컷락하는 등 투어에 적응하지 못한 바람에 평균타수가 30위(71.56타)에 처하는 등 각종 지표에서는 김세영, 김효주에 아직 턱없이 모자란다. 그러나 킹스밀 챔피언십을 계기로 그동안 투어 적응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퍼트가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자신감마저 붙어 신인왕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올 태세다. 이민지는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쟁터 같은 투어 분위기에 시

즌 초반에는 정신적으로 적응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다르다"며 "뛰어난 신인이 너무 많기에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투지를 불태웠다. 미국 대학 골프 최고 선수였던 엘리슨 리 역시 갈수록 힘을 내면서 신인왕 레이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킹스밀 챔피언십에서 이민지와 치열한 우승 경쟁을 벌인 엘리슨은 "이민지는 아마추어 시절부터 경쟁하던 사이"라며 "이번 대회에서도 (실패를 통해)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아

마추어 시절 라이벌이었고 켈리파잉스클에서도 나란히 공동 1위를 나눠 가졌던 친구 이민지의 우승을 지켜본 엘리슨의 분발이 예상된다. 이민지와 엘리슨은 국적은 호주와 미국이지만 한국인 부모에게서 한국식 교육을 받고 자란 공통점이 있다. 한국어도 웬만큼 다 알아듣고 말할 줄도 안다. 이민지는 대회 때도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과 찌개로 아침 식사를 한다. 둘은 또 IMG 뉴욕지사 에이전트 케빈 흠킨스라는 같은 매니저를

두고 있다. 이민지는 현지시간으로 월요일 오전에 치른 킹스밀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를 마치고 엘리슨과 점심을 먹었다.

신인왕을 향한 '코리안 레이스'에서 주목할 선수는 장하나이다. 장 하나는 우승 없이도 신인왕 레이스 3위를 줄곧 지키고 있다. 평균타수 12위(70.79타), 상급랭킹 13위를 달릴 만큼 투어에서 뛰어난 성적을 냈다. '톱10' 입상도 4차례에 이른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구사하는 장 하나는 버디 개수 9위(154개)로 한국 선수 가운데 김세영(176개·3위) 다음으로 많은 버디를 잡아냈다. 우승 물꼬만 트다면 신인왕 레이스에 회오리바람을 일으킬 후보다.

이들 '5인방' 가운데 신인왕이 탄생하면 LPGA 투어에서 11번째 '코리안 신인왕'이 된다. 1988년부터 작년까지 신인왕 17명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10명이 '코리안'이었다. 1988년 박세리(38·하나금융)가 처음 한국인 신인왕에 오른 이후 김미현, 한희원, 안시현, 이선화, 신지애, 서희경, 류소연이 한국 선수로 신인왕을 꿰찼다. 또 2007년 신인왕에 브라질 교포 안젤라 박이 오르면서 첫 동포 선수 신인왕이 탄생했고, 작년엔 리디아 고(18)가 두 번째 동포 신인왕이 됐다.

1982년부터 선정하기 시작한 신인왕 가운데 한국 국적 선수 8명은 미국 다음으로 많다. 미국과 한국을 빼고 신인왕을 2명 이상 배출한 국가는 스웨덴, 영국(이상 3명), 호주, 캐나다(이상 2명) 등 4개국이다. /연합뉴스

핸드볼 코리아리그 24일부터 인천대회

실업핸드볼 최강자를 가리는 '2015 SK핸드볼코리아리그' 인천대회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선학체육관에서 개최된다. '2015 SK핸드볼코리아리그'는 남자부 5팀, 여자부 8팀 등 모두 13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인천대회는 남자부 4경기, 여자부 8경기 등 총 12경기가 치러진다.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인천시청 여자 핸드볼팀은 홈에서 오는 25일 낮 12시 광주도시공사와의 경기에 이어 27일 오후 5시 30분 서울시청과 리그 우승을 위한 열전을 펼친다. 인천시체육회는 인천시청 여자 핸드볼팀의 리그 우승이 유력한 만큼 대회기간 중 많은 시민들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무료 관람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4일 개막한 '2015 SK핸드볼코리아리그'는 인천대회를 마지막으로 정규리그를 종료하고, 서울에서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을 거쳐 다음달 7일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최유태 기자 cyt@khhilbo.co.kr

제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2일째 열전 종합

육상·수영 릴레이 금메달 경기도, 독보적 1위 질주

하태우는 인천선수단 첫 2관왕

2년 연속 종합우승에 나서는 경기도가 제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이틀째 종합 1위로 치고 올라갔다.

도는 20일 육상과 볼링, e스포츠, 수영 등에서 금메달 15개를 수확하며 현재까지 금 21·은 16·동 23개를 획득해 울산(금 20·은 22·동 14)과 충북(금 15·은 19·동 11)을 2, 3위로 따돌리고 종합 1위를 내달리고 있다.

전날 육상필드 남자중학부 원반던지기에서 금을 딴 문중훈(평택 예비대학교)은 이날 청각장애 포환던지기에서 11.40m를 던지며 1위에 올라 대회 2관왕에 등극했다.

육상트랙 남자중학부 100m 시각장애 T13에서 안주형(경은학교·15초96)과 남자고등부 100m 지체장애 T37 박기환(광주고·16초03), 남자고등부 100m 지체장애 T20 김재범(경은학교·12초42), 여자고등부 100m 지체장애 T35~37 박연미(초원고·19.78) 등이 각각 1위로 골인하며 나란히 금빛 스프린터의 위용을 과시했다.

수영 남자중학부 자유형 50m 청각장애에서는 채예지(초당중)와 볼링 남자(초중

고) 개인전 지적장애 TPB4 신현승(샘모루초), e스포츠 혼성 난텐도 위스포츠-테니스 개인전 고등부 지체장애 신소미(양일고) 등도 각각 금메달 주인공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농구 중학부 지적장애 준결승에서 경기 선발은 서울시를 71-70으로 1점 차로 힘겹게 누르고 결승에 올라 금메달에 도전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금 3·은 5·동 5개를 추가하며 총 금 5·은 8·동 5개를 수확했다. 육상필드 남자고등부 포환던지기 F33 지체장애에서 금메달을 추가한 하태우(학익고)가 전날 원반던지기까지 합쳐 인천 선수단 가운데 첫 대회 2관왕에 등극했다.

남자중학부 멀리뛰기 지적장애 F20의 한영석(예림학교)과 여자고등부 원반던지기 지체장애 F37 이에리(작전여고) 등도 각각 1위에 오르며 나란히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수영 남자중학부 자유형 50m 지체장애 S7의 이현준(계수중)은 은메달, 배드민턴 남자 중고등부 지적장애 단식의 김현중(해양과학고)이 동메달을 각각 수확했다.

제주=심연규 기자 sims@khhilbo.co.kr

강정호 3안타에 도루... 주전 굳히기

2015 TIRE O BANK KBO LEAGUE

미국프로야구(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한국인 타자 강정호(28·사진)가 올 시즌 세 번째 3안타 경기를 펼치고 주전 자리를 굳혀 갔다. 강정호는 2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인터리그 홈경기에서 5번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3안타 1타점 1도루로 맹활약했다.

지난 15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전 이후 5경기 연속 선발 출전이자 5번타자로는 4경기 연속으로 나선 강정호는 17일 3안타, 18일 1안타에 이어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이며 꾸준한 선발 출전 기회를 준 벤치의 기대에 부응했다. 강정호가 3안타를 쳐낸 것은 두 경기만이자 올 시즌 전례로는 세 번째다. 또 홈에서는 처음이다. 시즌 타율을 0.300에서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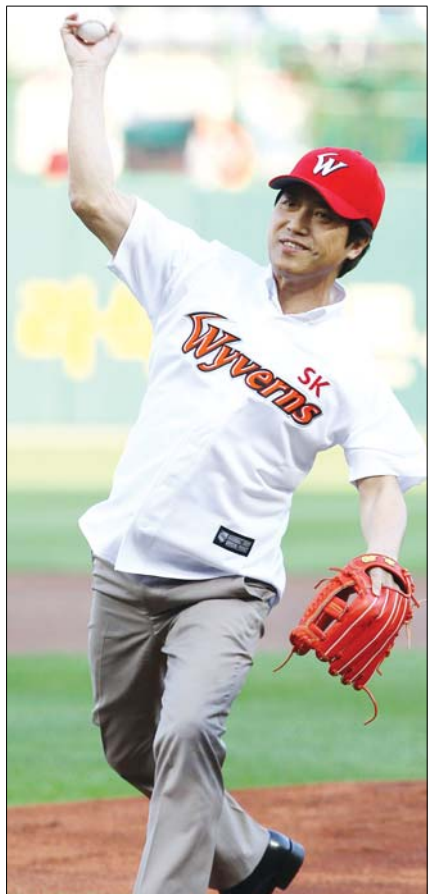


320(7타수 24안타)으로 끌어올렸고, 올 시즌 10번째 타점을 기록했다.

강정호는 수비도 안정적이었다. 한국프로야구 LG 트윈스에서 뛰 레다메스 리그가 구원 등판한 3회초 무사 1, 3루에서는 직접 베이스를 찍고 병살 플레이로 연결해 리에게 아웃카운트 2개를 선사했다. 6회초에는 상대 선두 타자 웨인 로빈슨의 날카로운 정면 타구를 제2루에서 잡았다. 강정호는 9회초 조디 머서가 유격수로 교체 투입되면서 3루수로 자리를 옮겨 수비를 소화했다. /연합뉴스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20일 열린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와 한화 이글스의 3회말 SK 공격 1사 상황, SK 박정권이 좌익수 뒤 솔로 홈런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광성중 김효종 교장이 시구를 하고 있다.

SK '인천광성중의날' 행사 김효종 교장 시구등이벤트

프로야구 SK 와이번스는 20일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를 '인천 광성중학교의 날'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SK는 지난 2012년부터 '인천 광성중학교의 날' 행사를 시작해 올해로 4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경기에는 광성중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 500여 명이 야구 관람을 통해 스포츠 문화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이날 광성중 학생들은 SK 와이번스의 선발 출장 선수들의 친필 사인을 받는 '스타팅 라인업 이벤트', 선발 출장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워닝로드 이벤트', 애국가 제창 등 다양한 그라운드 이벤트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경기 전 시구와 시타는 김효종 교장과 이장민 학생회장이 각각 맡아 사제 간의 정을 보여줬다. 최유태 기자 cyt@khhilbo.co.kr

오늘의 경기

◇21일(목) ▶프로야구=삼성-두산(잠실) LG-넥센(목동) 한화-SK(문학) KIA-롯데(사직) kt-NC(마산·이상 오후 6시 30분) ▶테니스=서울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 대구국제체육저수지(대구유니버시티 아드코트) ▶사이클=직지찾기 국제도로사이클대회(오전 9시 30분·충주) ▶핸드볼=SK코리아리그 코로사-신협상무(오후 5시) 인천시청-부산시청(공단) 오후 6시 30분-이상 삼척체육관) ▶골프=SK텔레콤 오픈(인천 스키야드)골프장 오션코스) 두산 매지클레이 챔피언십(춘천 라데나 골프장)

꿈나무 '미래 탐색전' 대학-부모가 도와요



안산대 간호과 송영아 교수와 학생들이 시흥 군서고 동아리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멘토링을 실시했다.



인천하늘초는 학부모가 명예교사로 참여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알려줬다.

안산대, 시흥 고교생들에 간호과 체험 기회... 다양한 프로 마련

안산대학교는 간호학과 실습실에서 시흥 군서고등학교 나이팅게일 동아리 학생을 대상으로 간호학과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진로 멘토링은 간호학과 실습과장 송영아 교수와 재학생 6명이 고등학생 20명과 함께 멘토-멘티를 구성, 간호학과 입학·진로·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학과별 소모임 활동과 해외 연수 등 전공수업 외에 다양한 대학 생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여성 분만실과 신생아·소아과 병동 실습실을 돌아보며 기자재를 활용한 다양한 진로 체험을 진행했다.

권희정 학생은 “교수님과 멘토에게서 간호사가 되기 위한 진학 준비와 갖춰야 할 다양한 소양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게 돼 무척 기뻐다”며 “앞으로 전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겼다”고 말했다.

송영아 교수는 “고교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학과를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대는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안산=최승필 기자 spc@khihoilbo.co.kr

인천하늘초, 학부모 1일교사로 참여... 직업의 세계 길라잡이역

인천하늘초등학교는 '오리는 꿈이 자라는 진로체험의 땅'을 맞아 지난 19일 3~4교시에 오리온 별(꿈)이와 함께하는 학부모 1일 명예교사 진로체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세계를 선보였다.

이날 학부모 1일 명예교사 위촉장을 받은 이들은 자녀가 있는 각 교실로 이동해 살아있는 수업을 진행했다. 1일 학부모 교사들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 진로를 선택할 때의 고민 등을 얘기함으로써 학생들과 소통했다. 참여한 학부모들은 파일럿, 경찰, 소방관, 간호사, 교수 등의 다양한 직업 경험을 바탕으로 알찬 진로교육을

펼쳤다.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위해 1일 명예교사로 위촉된 3학년 김형수 학생의 부모는 “현재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도 자신의 꿈을 위해 한발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강조하는 모미정 교장은 “하늘초 하늘골 오리온(ORION) 별(꿈)이와 함께하는 1일 학부모 명예교사 진로체험은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꿈과 끼를 키워주는 열정과 비전의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유태 기자 cyt@khihoilbo.co.kr

교육단신

오산혁신교육지구 생존 수영교실 확대운영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육교과의 체험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오산혁신교육지구 중학교 수영 체험 프로그램'을 개강했다고 20일 밝혔다.

오산혁신교육지구 내 관내 전체 초등학교 3학년 생존수영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이어 중학교 9개교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되는 이번 수영교실은 이달부터 12월까지 14차시로 편성돼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실시되며, 학생들의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2개 중학교의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부터는 관내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오산혁신 생존수영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일선 학교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hihoilbo.co.kr

연천 왕산초교, 과학캠프 체험프로로 풍성

연천군 왕징면 왕산초등학교는 19~20일 이틀간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2015 과학희망캠프'를 실시했다.

1박 2일로 계획된 과학희망 캠프의 첫 발걸음은 과천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해 고미술 감상여행 Op.3 '찾아보는 미술관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국립과천과학관에 도착한 아동들은 과학관에서 기획한 '하룡선이 과학소' 공연을 관람하고, 전시관을 둘러보며 원목 카프라 구조물 만들기 등에 도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시행했다.

다음 날에는 역사 속의 과학 탐방, 곤충생태관 관람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소 가지고 있던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충족시키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에 책으로만 봤던 내용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왕산초교는 앞으로도 가족캠프, 영어캠프 등 다양한 주제별 체험학습을 통해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hihoilbo.co.kr

인천 장애인학생 졸업하면 '교육 끝'

윤관석의원-장애인총연맹 공동조사 평생교육 전무 등 전국 최하위 수준

인천지역 장애인 교육수준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동으로 20일 국회에서 발표한 '2015년 시·도별 장애인 교육·복지분야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은 전년도 '양호'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했다.

인천은 이번 조사에서 전국 평균 67.03점에

도 미치지 못한 최하 62.64점을 받으며 서울·전북과 함께 분발그룹에 속했다.

그나마 장애인 복지분야에서는 전국 평균 46.00점보다 높은 양호 그룹에 이름을 올리며 체면을 세웠다.

박대성 인천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인천은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장애학생 교육수준은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있지만 학교를 졸업한

일반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여전히 열악하다”면서 “평생교육 역시 일반인들은 활성화된 반면 인천지역 장애인 대상 교육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의 재정적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역시 활성화되지 않으면 인천의 장애인 교육수준은 여전히 전국 하위권에 맴돌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인천 남동구)국회의원은 “최근 3년 연속으로 장애인 교육에 대한 전국 점수가 하락하고,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어 문제”라며 “지역별로 장애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유태 기자 cyt@khihoilbo.co.kr

화성 행정초교 “재난대응 안전교육이 해법”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행정초등학교는 22일까지 일주일간을 안전문화행사 주간으로 정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재난대응훈련 및 학급 전체 시간을 활용한 다양한 안

전문화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교육은 1~4학년 학생들의 경우 오전 중 지진 및 화재 발생 시의 대처 요령과 소화기 사용법을 배우고, 재난경

보 발령에 맞춰 지진 발생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5~6학년은 오전 중 지진 및 화재 발생 시의 대처 요령과 소화기 사용법을 배우고 오후에 전국적인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의 재난경보 발령에 따라 지진 발생 및 화재 발생 대비 훈련을 했다.

특히 전교생 및 교직원들이 참여한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했다. 이

밖에 각 학급에서는 안전문화행사 주간에 안전 OX퀴즈대회, 안전캐릭터 그리기, 안전동요 부르기, 안전한 학교문화 만들기 토의 등 다양한 안전문화 행사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올바른 대처 능력 습득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인식과 실천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hihoilbo.co.kr

시흥 도원초 국제교류 강화...중 초교생들 불러

시흥 도원초등학교는 중국 산둥(山東)성 더저우(德州)시에 소재한 실험초등학교(실험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를 초청, 20일부터 24일까지 시의 예산지원으로 한중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험초등학교는 1963년 개교, 현재 51개 학급, 학생 3천 150여 명, 교사 149명으로 학생들의 문화활동을 중시하며 체육, 안전교육 등을 통한 명문 학교로서 12명의 학생과 4명의 교사가 시흥 도원초를 방문했다.

최진우 교장은 “본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실질적인 해외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세계로 미래로 향한 꿈을 좀 더 구체적이고 넓게 가져

글로벌 마인드와 국제적 역량을 키우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며 국제교류의 목적을 밝혔다.

21일 오전 9시 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는 환영식에는 실험초등학교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교육 관계자, 도원초 운영위원, 학부모회장, 졸업학생 및 전교생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양교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후 교장과 학생대표들의 환영사와 답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오는 10월 초에는 한중 청소년 국제교류 한국 방문단의 방중행사가 예정돼 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hihoilbo.co.kr

6th 2015

지역사랑 희망 Ch4
우리지역 대표방송 NIB남인천방송

올해는 남인천방송 고객만을 위한 NIB남인천방송 골프대회

NIB Viewer Golf Championship

일시: 2015. 6. 4(목)
장소: SKY2 하늘코스

1:100에 도전하세요

NIB시청자 골프대회 대회 일정

◆ 대회일정

- 일 시 : 2015년 6월 4일(목) 오후 1시 30분
- 장 소 : SKY72 하늘코스
- 접수 및 식사 : 11:30~12:30
- 홀이동 및 시타 : 12:30~13:00
- 티 오프 : 13:30~18:30
- 시상식 및 만찬 : 19:00~

※ 일정 및 시간은 당일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기방식 : 신페리오, 샷간방식 혼합적용 (남,녀 구분 성적순 시상)

참가자격 : 인천광역시 거주 아마추어 골퍼 (남인천방송 시청 가입자에 한함)

참가비 : 1일당 25만원 (그린피, 캐디비, 카트비, 중식, 저녁만찬, 기념품 포함)

입금계좌 : 우리은행 / 1005-900-990782 / 남인천방송(주) ※참가비 납부 후 환불시 환불 불가.

접수마감 : 5월 20일(수) 선착순 마감

참가신청 : 인터넷접수 [www.nibtv.co.kr] 및 전화 접수(032) 230-1216]

추첨경품

화성시, 공동장사시설 반대 주장에 정면 반박

경기연구원 분석결과 다이옥신 담배연기의 1/22 수준 검출 수은·아연 등 유해성 중금속도 없어... 환경 문제 기우일 뿐

화성시는 시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공동형 장사시설에 대한 일부 지역의 반대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시는 20일 “비과학적·비합리적 주장으로는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없다”며 인근 4개 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에 반대하는 서수원 호매실지역 주민들과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화장시설에서 2~3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호매실동 주민들은 화장시설로 인한 대기오염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1일 공개된 ‘용인 평온의 숲’과 ‘수원 연화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연구원의 ‘화장시설 환경영향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다이옥신은 담배 연기의 2/22 수준의 1 수준이 검출됐고, 먼지·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법적 허용치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또 수은과 아연·구리 등 유해성 중금속

수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환경문제가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밖에도 시는 밀실행정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후보지 선정 과정에 주민들의 적극 참여와 시민대표가 포함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오히려 공개·투명행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호매실 주민 의견 미수렴, 정서적 피해 주장과 관련해서는 우선 “장사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해야 하는 의무 시설로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지속적인 언론 보도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많았고, 호매실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주민설명회도 개최하려 노력했으며 민관협의회 운영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장시설은 각 지자체별로 소규모로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지자체 공동 건립을 장려하고 있으며, 5개 시가 공동으로 화장로 13기를 이용하면 건립 예산이 획기적으로 줄어 예산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화성 공동형 화장장 건립이 서수원권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하기 위해 20일 오후 건립 예정지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화장장 건립 예정지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현장실사에 맞춰 철보산 화장장 건립저지 비대위 주민들이 나와 피켓시위를 벌였다.

시·산책로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최대한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최첨단 설비를 이중·삼중으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시설 개방을 통한 주민 검증 등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5일 상정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이날 매송면 속곡리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화성=조홍복 기자 hbj@kh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hihoilbo.co.kr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hihoilbo.co.kr

수원시내 싱크홀 관리부실 탓

사전 안전운영 여부 도마 위

수원시내에서 도로 침하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며 시의 사전 관리 부실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로 침하 현상의 원인을 지하 매설관의 파손과 노후화, 설계·시공 문제, 지하 터널공사 및 대형 건축공사의 지하 터파기 공사 등으로 꼽고 있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 20분께 영화동 장훈사거리 부근에서 지름 60cm, 깊이 1.5m 크기의 도로 침하 현상이 생겨 A씨가 몰던 차량의 바퀴 일부가 도로 밑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1일에는 팔달구 매교동에 지름 30cm, 깊이 65cm 크기의 도로 침하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매교동과 영화동에 생긴 도로 침하 현상의 원인을 각각 노면유관 관로에 생긴 구멍으로 인한 누·하수, 맨홀과 하수관 접합 부위의 이탈로 인한 토사

유실로 꼽고 모두 도로 하수관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관계 부서는 도로 침하 현상에 대비한 하수관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등의 문제로 구청에서 누수 발생에 대한 보수민원이 들어오거나 개인 공사 시 배수설비를 점검할 때 등 필요시에만 하수관 CCTV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가 보유한 하수관 CCTV 장비가 1대뿐이라 의뢰가 들어오면 구청 외 개인 공사 등의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운영하는 형식이다.

시 관계자는 “19일 발생한 도로 침하 현상의 원인인 맨홀과 접합 부위 이탈의 경우에는 하수관 CCTV 조사로도 밝혀 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영생 경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로 등 중요 구조물의 위치를 파악해 하수관 누수 파악 등의 꾸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만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가현 기자 hyun@khihoilbo.co.kr

취업 미끼 14억 꿀꺽한 일당 덤미

렌터카 기사 구인광고 낸 후 화물차 구입용 등 대출 유도 수십명 투자금 명목 뒤통수

대학생과 실직자 등에게 취업을 미끼로 금융 대출을 유도한 뒤 대출금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학생들에게서 취업을 미끼 들어오면 구청 외 개인 공사 등의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운영하는 형식이다.

또 실직한 화물차 기사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중고 화물차 구입용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과포(4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정모(30)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렌터카 기사로 일하게 해 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경기·충청지역 대학생들을 상대로 사무실 운영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에 박모(23)씨 등 19명에게서 3억 원을 받아 청진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대출 투자금을 낼 수 있도록 연 15%의 높은 이자로 대출받은 금융사를 소개했으며, 이들 외에도 삼아 사업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모(23)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 학생 19명 중에는 윤 씨가 박 씨에게 주변 친구들의 투자를 권유하도록 유도에 동참한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



취업준비생과 실직 화물기사 등 취업난을 악용해 41명을 상대로 14억4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대출사기범이 20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범죄2팀에 검거돼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hihoilbo.co.kr
까지 지입차량 기사 모집 신문공고를 보고 연락한 성모(47)씨 등 화물기사 22명에게서 화물차 구입을 대신해 주겠다고 이들이 대출받은 11억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심연규 기자 sims@khihoilbo.co.kr

오늘의 날씨 5월 21일(목)
해돋이 05:19 | 달뜨기 08:02
해질 19:39 | 달지기 22:27

모내기 시작철 '소만'
대체로 맑겠음. 아침 최저기온 7~13도, 낮 최고기온 22~27도 분포.

바다날씨 (오전)			강수확률(%)		
방향	풍속	파고	지역	오전	오후
서해 서~북서	5~9	0.5~1.0	인천	0	10
남해 북서~북	6~9	0.5~1.0	수원	0	10
동해 서~북서	6~9	0.5~1.0	동두천	0	10
			이천	0	10
			양평	0	10
			강화	0	10

제9경 Kw@ther www.630.co.kr

연체된 전기요금에 “억울해서 죽겠다” 50대 남성 수원지법 내에서 자살소동

50대 남성이 “억울해서 죽겠다”며 수원지법 내에서 자살 소동을 벌였다.

수원남부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20일 오후 1시 30분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법 내 4층 높이의 제3별관 옥상에서 장모(54)씨가 자살을 시도했다.

장 씨는 한국전력 관계자와의 대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의 지인 A씨는 “장 씨는 운영하던 사우나 사업장의 명의를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이 장 씨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했다”며 “장 씨는 전기요금이 본인에게 부과되는지도 모르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이 지난 3~4년 동안 연체된 전기요금 1천800만 원을 자신에게 물게 한 사실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 hyun@khihoilbo.co.kr

금전문제 다투다 살해... 60대 女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현)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 자신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을 흉기로 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64·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족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범행 방법 등이 잔혹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심연규 기자 sims@khihoilbo.co.kr

가입문의 1855-0000

hello

헬로tv, 세계 최초 UHD 방송 시작!

헬로tv UHD 방송 가입하시고 24시간 초고화질 세계를 마음껏 경험하세요!

- 24시간 UHD 전용 채널**
유맥스(U-MAX, ch. 1)에서 다양한 UHD 콘텐츠를 시청가능
- UHD VOD 시청**
초고화질의 UHD 콘텐츠를 VOD로도 시청가능
- 16만 편의 영화·드라마 VOD**
국내 최대 VOD콘텐츠를 보유한 헬로tv와 동일하게
-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삼성UHD TV에서 스마트TV앱만 설치하면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 2014년에 가입하시면 가입 후 1년간 UHD 이용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헬로tv UHD 상품은 '14년 3월 이후에 출시한 삼성의 UHD 스마트TV에만 지원됩니다. '14년 3월 이전 출시 상품 구매자께서는 삼성전자에서 판매하는 '14년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청가능하오니 이 부분은 삼성전자에 문의주세요. (삼성전자 고객센터: 1588-3366)

헬로tv UHD 방송이런? Full HD 보다 4배 이상 화질이 좋은 초고화질 방송 서비스

www.cjhellovision.com

인천 나은병원, 영락원 맡겼다 10년 만에 운영 정상화 청신호

법원에 60억 원 우선 출원계획 등 회생절차개시 신청
신속 중 부도 요건물 일반 병동 전환 채권 상환키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지난 2006년 부도가 나며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인천 영락원이 꼬박 10년 만에 정상화 길을 걷게 됐다.

사회복지·의료법인 나은병원은 지난달 인천지법에 영락원 회생계획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나은병원은 법원이 청산기업을 처와 계속기업가치의 차이로 제시한 60억 원을 우선 출원하고, 향후 담보채권(80억 원) 및 일반채권(150억 원)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영락원 관리권을 받은 후 신속 중 부도가 난 노

인요양병원 건물을 의료법인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나은병원 의료법인은 매입한 노인요양병원을 일반 병원으로 일부 용도를 전환해 채권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다.

나은병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이제 공은 법원에 돌아갔다. 법원이 나은병원 계획을 받아들여 회생개시를 결정하면 채권이 잠정 정지되고, 병원 측은 향후 10년 이내에 빚을 갚는 조건으로 운영권을 갖는다.

현재 법원은 나은병원이 제시한 계획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위임을 진행 중인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나은병원 재무제표 등을 받아 본 재판부는 유동자금 및 당기순이익 부문을 검토한 결과 영락원 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1989년 서구에 개원한 나은병원은 지난해 송도국제도시에 '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하는 등 종합병원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인천지역 30여 곳의 요양병원에서 2천여 명의 노인을 돌보는 사업을 진행하는 등 노인 요양에 대한 노하우도 갖고 있다.

기존 영락원 측도 나은병원의 회생절차 가능성을 높게 받아들이고 지난 19일 이사회를 통해 김용민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사진 5명 모두 퇴진을 가결했다. 새로운 등기이사는 법원 허락을 받아 조만간 나은병

원 행정부원장 및 병원장 측근, 병원 관계자 등 3명이 등재할 예정이다.

김용민 전 영락원 대표이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물로 신규 이사진이 구성됐다”며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일부 절차적 문제 외에는 나은병원 계획에 따라 회생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나은병원이 영락원 법정관리를 맡게 됐다”며 “노조는 모두 고용승계에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영락원에는 현재 130여 명의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해마다 약 17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배인성 기자 isb@kohoibo.co.kr
이재훈 기자 ijh@kohoibo.co.kr



2015 세계교육포럼이 2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에서 계속된 가운데 체험전시장을 찾은 학생들이 태블릿PC와 전자칠판을 연계한 스마트학습을 체험하고 있다. 최진규 기자 cmg@kohoibo.co.kr

미래 교실 둘러보고 직업 미리체험

인천 세계교육포럼 옥외전시장 참가자들에 인기

개막 2일째를 맞은 20일 '2015 세계교육포럼' 부대행사로 마련된 상설 옥외전시장이 인천지역 학생들에게 유익한 체험의 장이 되고 있다.

포럼 참가자들에게만 개방된 송도컨벤시아 옥내전시장과는 달리 옥외전시장은 일반인도 참여 가능해 학생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해 세계시민교육 정책을 홍보하는 부스와 체험관을 설치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최근 교육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ICT(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를 알리기 위해 3개 부스에서 수업을 시연하거나 미래 교실 모델을 재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다양한 수업 시연을 보며 손녀가 생각났다는 김양자(72)씨는 “우리 손녀가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 교육이라 관심이 갔다”며 “일반인도 마음껏 구경할 수 있어 천천히 돌아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위한 대학 특성화사업 홍보부스와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육 우수 사례를 체험하도록 한 고등교육관 역시 인기를 끌었다.

특히 고등교육관에서는 로봇 움직임 시연, 승마 체험, 방송 중계, 피부미용 등 각 대학의 우수 학과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경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다.

포스코고 1학년 입지는 학생은 “그동안 직업 체험이나 진로 탐색을 할 기회가 없었다”며

ICT 3개 부스 수업 시연
각 대학 홍보 고등교육관
즐기면서 진로탐색 기회

“이곳에는 다양한 체험관과 대학관이 있어 진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학교 3학년 이승현 학생과 장현우 학생은 “3학년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대학이나 학과가 세삼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학과 관련 정보도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즐겁고 유익한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2015 세계교육포럼 부대행사는 21일까지 계속되며,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전시의 경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된다.

김희연 기자 khy@kohoibo.co.kr

인천 이혼 위기가정 지원사업도 위기

오늘 '부부의 날'... 이혼을 2년째 전국 광역시 중 '최고' 시·지법 공동운영 상담... 국비사업 전환 예산 30%나 ↓

인천시와 인천지법이 공동 위탁 운영 중인 '이혼 위기가정 지원사업'이 국비 매정사업으로 전환된 뒤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여기에 인천지역 이혼율은 2년 연속 17개 시·도 중 최고로 집계되며 21일 '부부의날'을 맞는 인천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20일 인천시와 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위기가정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인원은 384명으로 2013년(17

1명)에 비해 56% 감소했다. 건수도 849건에서 525건으로 38% 줄었다.

예산 7천만 원을 전액 시비를 들여 진행하던 때와 달리 국(여성가족부)·시비 5대 5 매정사업으로 전환되며 전체 예산이 30% 가까이 줄어든 4천9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탁운영을 맡긴 비영리단체에서 전담인력 인건비로 월 180만여 원씩 지출하다 보니 실제

사업 예산은 3천만 원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이혼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재판이나 협의를 통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부부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 취하 등을 이끌어내 가족관계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인천은 2013년 8천324건이던 협의이혼 접수 건이 지난해 9천522건으로 늘었지만 취하 건수는 3천173건에서 3천114건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시 관계자는 “위기가정 지원사업 예산은 대부분 건물 5만 원 정도 지불하는 상담비용”이라며 “예산이

줄다 보니 상담인원과 건수가 줄어 실제 이혼 절화나 회복 등 가족관계가 개선되는 가정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에 계속해서 예산을 올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별도 사업이 아닌 국·시비 사업이라 증액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법원이 예산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가정·소년법원과 협력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ohoibo.co.kr

'아내와 왜 싸워' 이웃 여성 찾아가 몸쓸짓 60대 징역형

아내와 다툰 이웃 여성을 찾아가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아내가 이웃 여성과 다투었다는 말을 들

고 따지려고 남동구 주택가에 있는 B(65)씨의 집에 찾아가 문이 열린 틈에 침입,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3월 6일 또다시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가 외출하려던 B씨를 붙잡아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

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2주가 지나지 않아 다시 한 번 같은 범행을 시도했다”며 “육체적·정신적으로 충격을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ych23@kohoibo.co.kr

인천 가정동서 화물차 기사 굴삭기 내리다 깔려 숨겨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한 주차장에서 굴삭기에 깔려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3시 50분께 서구 봉오대로에 위

치한 굴삭기 차고지에 주차된 화물차량에서 소형 굴삭기를 바닥에 내리던 중 화물차 운전자 A(51)씨가 깔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고 20일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다발성 골절

과 내장 손상 등으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으며 이날 오전 6시 34분께 გადა 출혈로 숨을 거뒀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주변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ohoibo.co.kr

본사 명예홍보이사
밸런트 이영후

“수명이 오래가는 명품 고급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방수비 절감 난방비 절감

남양주시청 용인시청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영등포경찰서

2014년 (주)이파일지종합특수방수주요실적

- SAMSUNG 삼성전자로지텍
- 구리시형사년수련관
- 송전중학교

인천소방안전학교
- 경인T고등학교
- 경인부안초등학교
- 용진부전산림조합

이파지

- 하남소방서

블로그 <http://blog.naver.com/waterproof01> www.IPALG.co.kr

인천·부천 (032)471-6020	안양·안산 (031)422-1237	과천 (02)502-0494	안성 (031)676-2885	구리 (031)567-5576	동두천 (031)861-5576	광주 (031)767-0470
남수원·화성 (031)233-8061	고양·일산 (031)907-6029	광명 (02)2625-7904	의왕 (031)241-6921	포천 (031)531-5567	김포 (031)907-6029	곤지암 (031)767-0470
북수원 (031)241-6920	의정부 (031)872-5576	성남 (031)733-4416	평택 (031)657-0423	양주 (031)842-5576	용인 (031)322-7751	가평 (033)243-1728
양평·용문 (031)771-7782	남양주 (031)594-4416	하남 (031)734-4417	오산 (031)372-0893	파주 (031)947-5576	이천 (031)636-7783	춘천 (033)241-8954



2015 코리아오픈 국제 탁구대회-슈퍼시리즈

2015. 7. 1(수) - 5(일) | 인천 남동체육관

세계 최고의 탁구선수들이 집결하는 진정한 탁구 월드컵!
2015년 코리아 오픈 국제탁구대회도 변함없이
인천광역시에서 열립니다!!



_주최 국제탁구연맹

_주관 대한탁구협회 인천시탁구협회 기호일보

_문의 기호일보사업국 032)761-0007

_후원 인천광역시